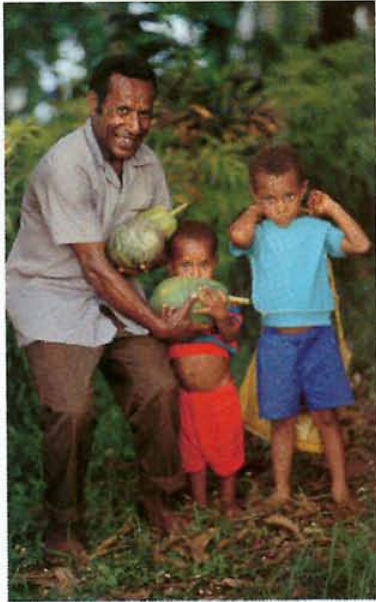


1995 8

# 성도의 벗

말인성도  
에수그리스도  
교회

본책 부록 : **아티아만**



### 표지 설명

앞 표지 :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로버트 간디아 형제는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예전에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뒷 표지 : 위 왼쪽 : 세미나리와 문맹 퇴치반 교사의 에스더 카이리(중앙)와 파푸아뉴기니 출신의 학생들의 바리아 아우디오 호우 히오베이는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영적의 발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위 오른쪽 : 전형적인 기둥으로 높이 떠 받혀진 집들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서 그 뒤에 보이는 수도 포트모레스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래 : 임무 지명을 받아, 호주 퍼스 출신의 다이어나 윈터 자매가 뉴기니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한 가지 언어'" 40쪽 참조. (사진 촬영 : 마이클 알 모리스)

### 어린이란 표지 설명

그림 : 세리 린 보이아 도터. 이야기 시간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힘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	16
감독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방법 아넷트 팩스맨 보웬 .....	20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든 엘 설 .....	26
어린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임 케이 린 웨이크필드 .....	34
기회를 포착함 클리우디아 엘리야슨 .....	38
파푸아뉴기니의 '한 가지 언어' 마이클 알 모리스 .....	40

## 청소년란

20일 간의 목표 웬디 피셔 .....	8
기도와 기다림 저스틴 시 뉴캐번 .....	10
소웨토에서의 세미나리 페기 에이치 앤더슨 .....	12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사룬 러커 .....	19
나의 성경 소나 벨로린 .....	24

##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 "죄를 더욱 슬퍼함" .....	25

## 어린이란 (별책 부록)

탐험: 비옥한 땅 루스 릴리엔퀴스트 .....	2
심심풀이 .....	5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	6
이야기: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게일린 왓슨 .....	8
친구가 친구에게: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	12
네이트의 감사 클래어 미시카 .....	14
물문경 이야기 : 헤이고드 .....	16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네델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아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형화: 보이드 케이 패커, 윌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엠 리얼 벨리드, 조엘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클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맥스 디 파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엠 겸 가와사키

성도의 빛: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셜

편집인 보조/어린이판: 다넬 워커

스케줄 관리: 매리엔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디 밴 클렌

디자이너: 세리 쿡

생산 관리: 레이놀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이 앤 피터스

데니스 카비, 마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텝: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윌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슨,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 363호, 제 32권, 제 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1995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현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인쇄주식회사 김현수

©199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August 1995 International Magazine of the 번역본 Korean.

09299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

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

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

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

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 나의 소중한 안내자

레프왈(프랑스 판)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읽어 버립니다. 저에게 이 잡지는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저는 대관장단 메시지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사는 제가 주님의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알로자  
살롱 데 프로방스 지부  
프랑스 니스 스테이크

### 선교 사업의 도구

저의 형이 침례를 받고 워드 회원들이 형에게 지나간 리아호나(스페인 판) 몇 권을 주었을 때, 이 잡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잡지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제 형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형이 다니던 워드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으나, 우리에게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고 또 읽었으며,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집으로 돌아온 후, 형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저는 1987년에 침례받았습니다.

훗날 제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리아호나는 저에게 또 하나의 다른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선교 사업이 끝나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리아호나를 선교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세탁소에 오는 손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잡지 몇 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의 온 가족들이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들도 리아호나를 읽고 있으며, 팔 년 전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같은

영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나간 팔 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과 리아호나를 통해 제가 받은 권고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막달레나 세르반테스 레나  
프레스노 워드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 스테이크

### 커다란 도움

제가 처음으로 리아호나(스페인 판)를 읽게 된 것은 실수에 의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종자로서 이 잡지에 실린 기사들과 복음에 따른 생활의 모범적인 예 그리고 총관리 직원들의 메시지 등을 통해 리아호나는 제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대관장단 메시지와 방문 교육 메시지를 즐겨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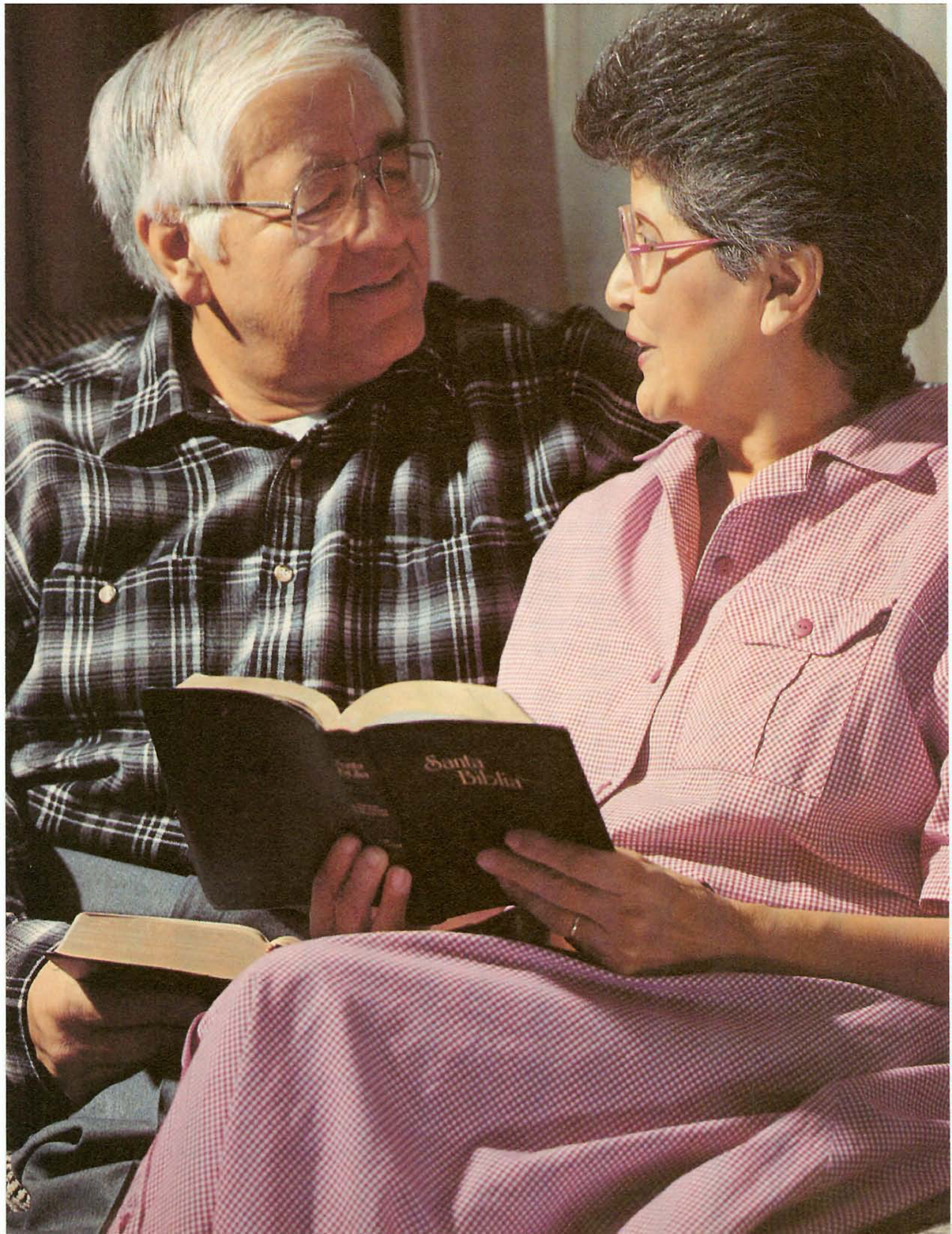
플로르 레알 헤르난데스  
라 트리니다드 워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스테이크

### 활동 축진의 역할은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로 1994년 8월호에 고든 비 힝클리 부 대관장께서 쓰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사는 제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또한 비회원인 저의 가족들을 집에서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장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선교부



#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 절

정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

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이러한 운명을 성취하려고 노

력하여 살아간다면, 이는 모든 말일성도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등에 기름을 담으라는 권고를 받았던 열 처녀에 관한 비

유를 생각하여 볼 때, 다섯 명은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고 다른 다섯 명은 준비를

갖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주님께서 이 다섯 명을 어떻게 꾸

짚으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태복음

25:12) 참으로 준비에 관한 위대한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진리가 있을 만한 책과  
장소에서 진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는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세번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늘려 나가 이를 좋은 일에 사용한 사람들을 보고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러나 받은 한 달란트를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땅에 묻어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얼마나 인짱아 하였습니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마태복음 25:30)

그리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러한 명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 본 제자들의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마태복음 21:19~20)

이러한 비유를 통해 저는, 만일 우리들이 참으로 선택받은 세대라면 준비를 갖추고, 생산적이며, 충실하고 또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권고드립니다. 필멸의 세계로 알려진 이 시간 속을 여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로를 알려 주는 나침반과 우리의 발 길을 안내할 지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본보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필멸의 세계를 여행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보상을 얻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식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채우는 것이며, 두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봉사로 채우며, 세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의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가 있을 만한 책과 장소에서 진리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격언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의 거룩한 말씀을 탐구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도와 영감을 얻기 위해 인간의 철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각양각색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철학이 지닌 진리는 앎은 기초를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큰 비행장의 활주로 근처의 한 철장에 있던 한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이 원숭이는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갈 때 너무 무서워서 철장을 마구 흔들며 덜컹덜컹 소리를 내었습니다. 곧 원숭이는 자기가 철장을 덜컹거리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숭이는 철장을 흔들며 대는 것이 비행기를 지나가게 하여 그의 두려움을 없애 주고 혼자 조용히 있게 하여 준다고 아무 의심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철장에 매달려 몸부림치는 것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바로 이러한 경우를 일부 인간의 철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학의 영원한 고전인 작은 아씨들의 저자 루이샤 메이 알코트의 다음과 같은 시귀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왕관 이외에는  
나는 그 어떤 왕관도 구하지 않으리  
내 안에 있는 세상 이외에는  
나는 그 어떤 세상도 정복하지 않으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에 대해 좋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 행하라"(교회 정사, 2:170)

지난날 대관장단 특사로 봉사하셨던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님께서 미합중국 재무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들과의 한 회견에서 케네디 형제는 한 기자로부터 기도의 힘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 다. 그는 당당히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으며 또한 기



선교사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을 바쳐 셀 수 없이 값진 것 곧 복음에 대한 간증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여 진리를 얻을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시간이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찾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채우도록 합시다.

공식의 두번째 부분은 우리의 생활을 봉사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사서 2:17)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이들의 모든 시간을 바쳐 셀 수 없이 값진 것 곧 복음에 대한 간증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예언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여러분의 신성한 부름을 성취하도록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보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저에게는 선교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으로부터 지도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어떤 선교사 지원자의 신상 명

세를 읽고 있었는데, 김볼 대관장께서 그 젊은이가 영국의 런던 선교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어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젊은이를 덴마크의 코펜하겐 선교부로 보내십시오.”

저는 지원서를 보다가 스테이크 부장이 언급한 중요한 대목을 지나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 이 지원서를 전에 읽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라고 김볼 대관장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스테이크 부장이 쓴 것을 좀 보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지원자의 할아버지는 덴마크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이 형제님은 우리 스테이크의 축복사입니다. 이 선교사 지원자는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통해 참되고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그 특별한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김볼 대관장께서 고개를 끄덕여 그의 부름을 승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소중한 재산, 곧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음을 알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증은 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기적으로 간직하려 한다면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려 한다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식의 세번째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서로 실력이 엇비슷한 팀간의 아주 흥미진진한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팀에는 야구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훌륭한 홈런 타자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기자가 그 선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선수는 홈런이나 타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는 그의 부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선수는 행크 아론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남들이 가진 변변한 것들조차 가질 수는 없었지만, 야구를 사랑하였습니다. 야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부친이 뒷마당에 버려진 오래된 차에 앉아 몇 시간

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곤 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행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겠어요. 아버지, 일자리를 잡아야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허버트 아론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만, 너는 학교를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네가 어렸을 적에 나는 아침마다 50센트를 식탁에 두곤 하였다. 그것은 그날 네가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25센트를 가져가 그것으로 내 점심을 사곤 했다. 네 교육은 내게 있어 내 점심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 아버지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내가 갖기를 바라고 있다.”

행크 아론은 부친이 매일 아침 식탁에 놓고 가셨던 50센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돈이 부친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받는 교육이 부친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크 아론이 말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저에게 품고 계셨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학교에 다니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사랑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야구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 타자였던 행크 아론이 겸손하게 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읽었던 한 신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한 아버지가 이웃집에 새로 설치한 수영장에 빠져 죽어 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구조하였다.” 이 기사는 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 딸이 수영장으로 빠질 때, 침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없었으며,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 당황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수영장은 딸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짚고 무릎을 꿇은 뒤 수영장의 가장자리로 엉금엉금 기어가 어린 딸이 물 속에서 내뿜는 공기가 뽀글거리며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정말로 익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온 청각을 동원하여, 아버지는 뽀글거리는 소리에 아주 세심하게 귀기울이다가, 가슴 속의 사랑과 영혼의 기도가 깃들인 필사적인

시도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소중한 딸을 잡아채 안전하게 가장자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미합중국 역사상 훌륭한 대통령 중의 한 분이신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저술가이자 웅변가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묘사한 사랑보다 인간이 타인에 대해 지닐 수 있는 사랑을 더 훌륭하게 묘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글은 리디아 빅스비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의 가슴을 채웠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부인에게:

저는 육군성의 서류철에서 부인의 다섯 아들이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메사추세츠 주 군무 국장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해도 다섯 아들을 잃은 부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덜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아드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구한 이 공화국이 바치는 감사와 함께 위안의 말씀을 전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별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사랑했으나 이제는 곁에 없는 아드님들에 대해 행복했던 추억만 부인에게 남아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은 바로 자유의 제단 위에 그 고귀한 제물을 바쳤다는 거룩한 자부심이 부인에게 항상 남아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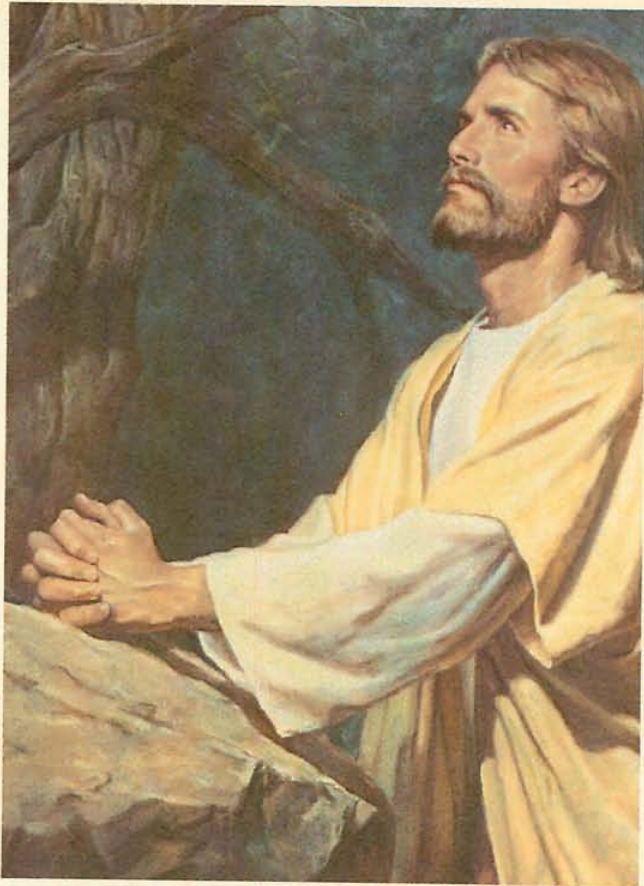
진심으로 존경하는,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는 성찬식에서 자주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배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죄 값 인해 못 박혀 피흘리셨으니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한다. 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 몸소 사랑을 보여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려야 한다.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찬송가, 111장)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겿세마네에서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한 나사로의 무덤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무덤이 열려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첫번째 시현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 시어 요셉 스미스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시신 사랑에 대해 생각하여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육신을 입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여주시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교사 이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구세

주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분의 생각을 진리로, 그분의 생활을 봉사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범을 따를 때,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꾸중의 말들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빈 등잔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익한 종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공식의 각 부분들을 사려 깊게 따르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우리의 생활을 봉사로 그리고 우리의 기슴을 사랑으로 채울 때, 그날에 우리의 구세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라는 말을 들을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구세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의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도다”(교리와 성약 76:5~6)라고 말씀하시는 날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하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필멸의 이 시간 속을 여행할 때,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보상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2.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채운다.
  - 우리의 생활을 봉사로 채운다.
  -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운다.
3. 예수께서는 몸소 그분의 생각을 진리로, 그분의 생활을 봉사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모범을 보여 주셨다.

# 20일 간의 목표

과거에도 일기를 쓰려다가 도중에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

## 웬디 피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여덟 살 때 선물로 첫번째 일기장을 주셨다. 나는 여기에다 여러 달 동안 일기를 적고는 도중에 그만두었다. 그 후에 내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 일기장을 들추어내어 읽어 보았다.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유는 그때까지 일기장을 세 권이나 더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우리 지부의 세미나리 교사가 나에게 20일 동안 매일 일기를 써 보라는 목표를 주었다. 교사는 내가 20일 동안 일기를 쓴다면, 곧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쓰는 것이 어려웠으나, 곧 쉬워졌다. 내 느낌과 생각을 적어 내려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적인 느낌과 생각도 그 안에 적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훗날 나의 자녀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가격 등을 포함시켜 나의 기록을 재미있게 적어 나갔다. 훗날 내 자녀들이 내가 어렸을 때의 일상 생활을 살펴보면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상상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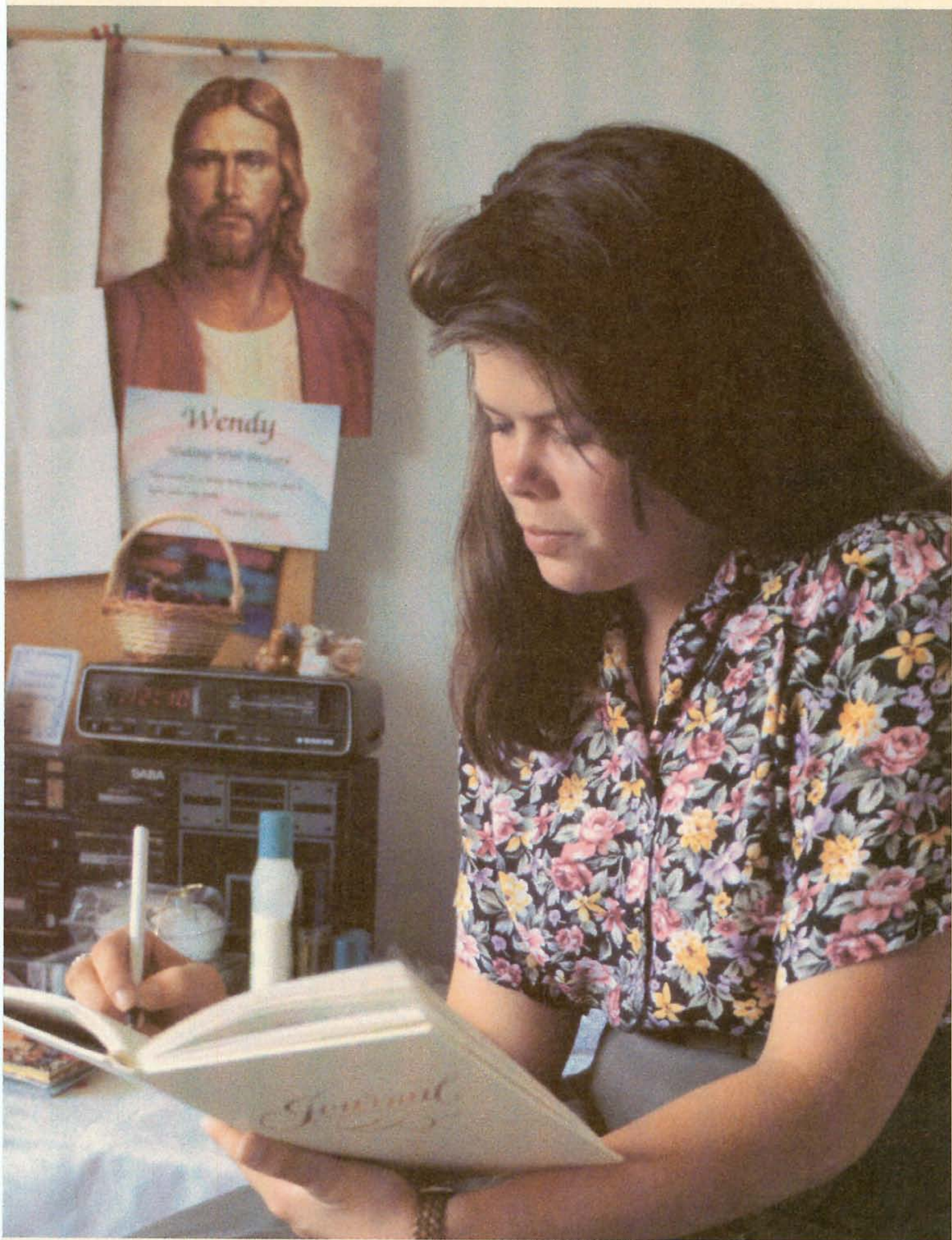
나는 일기가 느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미묘한 느낌들을 일기장에 적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때때로 간증을 하기는 하였지만) 성찬식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나로서는 어렵게 느껴졌기에, 이것을 종종 일기장에 옮겨 적곤 하였다.

나는 내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일요일에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 이전에 내가 쓴 것들을 읽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기장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영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일기장은 내가 나의 생활을 분석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기장을 읽노라면 마음이 편하여지고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내 친구들에 관한 것이다. 오빠가 선교 사업 중일 때, 나는 매주 오빠에게 편지를 썼고, 내가 오빠에게 적어 보낸 것과 같은 많은 생각들을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나의 침례식과 청년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적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6년 동안이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친구가 선교사와 토론을 갖고 침례를 결심했던 일도 적었다. 만일 친구가 자신의 침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과 우리 모두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친구와 나눌 수도 있다. 지금 나는 내 친구도 자신만의 일기를 적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5년 전에 20일 간의 목표를 받았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적고 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 일기장을 꺼내 가지고 간다. 그리고 경전을 읽고 난 후, 일기를 적는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기 쓰는 것을 평생 동안 실천할 계획을 세웠다. □



# 기도와 기다림



저스틴 시 뷰캐넌  
그림 : 스코트 스노우

**교**회에 다니면서 성장한 나는 항상 이 교회가 참되다는 말을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들어 왔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 진정으로 애써 본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았고 또한 부모님께서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가 참된다고 생각하였다.

선교 사업을 항상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을 느꼈고, 나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 부름을 받은 후에, 나는 교회의 진실성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지금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직전이라 간구할 용기가 나에게에는 없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나는 큰 영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얻고 있는 지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나 스스로 복음이 참된지를 알 필요가 있었으나, 나는 그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 버렸다.

하루는 교사가 훌륭한 수업을 마치면서 간증을 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 교회가 참된지를 알아보라는 목표를 주었다. 나는 그 수업이 특별히 나를 겨냥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참된지를 알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 나는 낙심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 경전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러한 구절을 읽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끈기있게 주를 받들지어다. 너희 기도가 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상달되어 이 인봉과 성약으로써 기록되었음이니, 곧 주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실 것을 맹세하시고 명령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불변하신 성약으로 약속하셨나니,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름에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98:1~3)

이 구절은 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며칠 후에 한 노변의 밤 모임에서, 우리는 예언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결코 그날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토록 강한 영을 느끼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모임이 끝날 때 우리는 일어서 찬송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다. 나는 압도되었다. 나는 성신이 나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나는 현재의 예언자들이 참된 교회를 인도하고 있음도 깨달았다.

나는 최근에 애리조나 주 텍슨 선교부에서 귀환하였다.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그 특별한 날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진리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는 너무 늦거나 또는 너무 이른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고 계신다. □

# 소웨토에서의 세미나리

페기 에이치 앤더슨

**남** 아프리카의 소웨토 다운쉽. 이 마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좋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살인, 여성 폭행 및 구타 등이 거의 매일 요하네스버그 근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잔학 행위와 공포가 전부는 아니다. 작기는 하지만 평화의 장소도 있다.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함께 모여 세미나리에 가는 말일성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이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공부할 때, 그들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소웨토에서의 한 전형적인 세미나리 수업이 부엌과 거실 및 식당이 하나로 된 방에서 열린다. 적어도 일곱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가 기름이 발린 방수천으로 덮인 식탁 주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

교사는 그녀의 칼로 찢린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교사인 글라디스 사이아 자매도 학생들 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는 않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그 마을의 낯선 지역으로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일단의 남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칼로 찢렸다. 글라디스와 여동생은 다행히도 더 이상 큰 일없이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다.

글라디스는 말한다. “동생과 제가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가 엘렌에게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후에 일어나 제가 엘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등 좀 깨끗이 소독해 주겠니?’”

## 경전에 따라 생활함

소웨토에서의 생활이 때때로 위협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개회 찬송과 기도 후에 세미나리가 시작되면 그 위협들이 뒤로 사라진다. 수업은 성구 익히기로 시작되어 각 학

생들이 한 단어씩 성구를 암송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8)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소웨토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주님께서 경전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럭키 니헬라는 자신의 신앙이 심한 매질의 지경에서 자신을 구했다고 믿고 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께서 반원들에게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라고 럭키는 말한다. “선생님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과학의 한 원리를 이미 설명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다른 학생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알고 있다, 럭키, 선생님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셨어’”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나 전체 반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가르쳤어!’ 선생님은 몹시 화가 나서 반원들 모두를 하나씩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을 때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저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 자매와 므블리 자매는 세미나리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동안 함께 경전을 읽는다. 이 곳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경전이 힘과 위안을 얻는 훌륭한 근원이다.







“성구 익히기에서 배운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선생님이 내 책상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변하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변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하였습니다. ‘력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너를 용서했다.’ 선생님은 저를 때리지 않았으며, 그날 다른 학생들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경전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 예언자에 대한 사랑

함께 구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소웨토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교사인 레어드 빌라카지는 이와 같은 광경이 흔히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모세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는, 모든 학생들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모든 역경을 경험하고, 충실한 마음을 지녔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어려운 일을 행한 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슬프고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저에게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전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대목이 나오자 커다란 충격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꼈으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자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찬송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때요?’

“다른 학생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요, 말일에 사랑하는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걸리의 집 앞에 있는 걸리 므블리와 렉키 니헬라. 폭력과 중오가 범람하는 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와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

### 두려움 없이

세미나리 학생인 걸리 므블리는 자신의 신앙과 경전에 대한 사랑이 끔직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하였는지를 설명한다.

“하루는 제 친구 티니 구구와 제가 존디로 가서 책 몇 권을 다른 아이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 몇 명이 보였습니다. 이 곳에서 불량배들은 젊은 여자들을 폭행하고, 차도 훔치고, 아주 끔직한 일들을 저질러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불량 소년들이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언덕으로 데려가 끔직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구를 말하려고 애썼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속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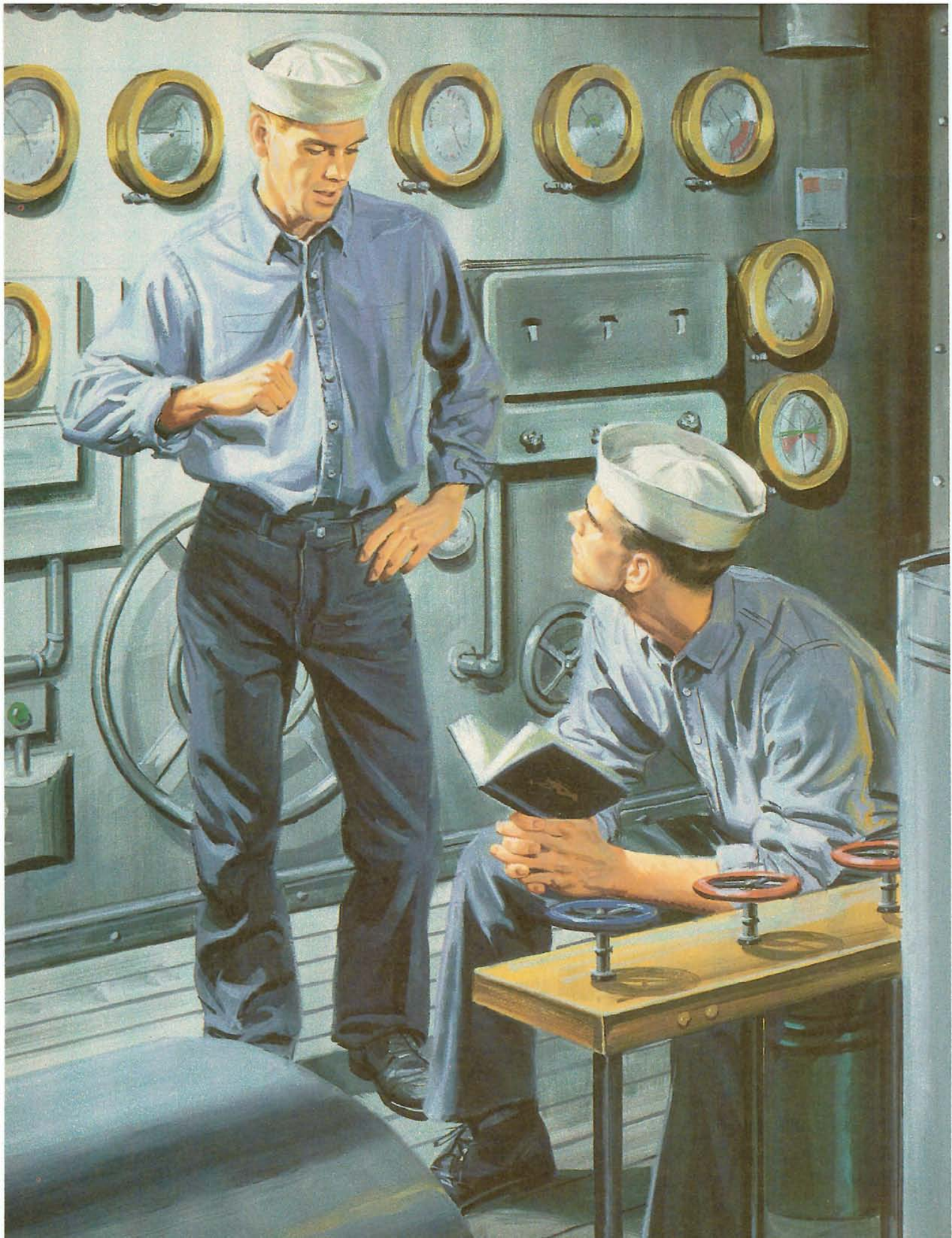
“언덕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자블라네’를 가리켰으며, 그때 무엇인가가 저에게 제가 할머니와 제 친구 린디웨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 보내 주마!’ 저는 제 친구 린디웨의 오빠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그가 우리 할머니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우리를 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왔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량배 소년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사야 1장 18절이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걸리가 보여 준 자비로운 태도에 놀라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웨토를 끔직한 곳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웨토에서는 이러한 세미나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와 기도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이 학생들은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와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걸리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



#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힘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원리는 여러분이 비회원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일 때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말일성도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자신의 표준을 낮추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남들이 모를 것이라는 점이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으며, 만일 여러분이 훌륭한 모범을 보일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가족과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레스톤 공군 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윌리스 헵위스를 만났는데 그는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스는 주변에 가족 회원이나 교회 친구들이 없을 경우에도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윌리스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맡아 봉사해 왔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유타 주 마그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해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윌리스가 해군에서 부여받은 임무 중의 하나는 미합중국의 동부 해안을 담당하는 소해정에 승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 중에 그 맡고 있는 교회 회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가 수리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의 뉴번에 입항하자, 윌리스는 그 지역의 지부를 수소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토요일에 지부에서 무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도회에 갈 생각을 하며 가슴설레었던 윌리스는 두 명의 동료인 케네스 킨젤과 존 아처에게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여성들이 오는 파티에 가자는

제외에 마음이 끌려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무도회에 참석하여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켄은 특별히 술을 마시지도 않고 또한 해변으로 놀러 가는 활동과 비슷한 다른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후원하는 교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서 윌리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 좀더 알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윌리스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었으며, 선교사들이 켄과 존을 가르쳐, 몇 주 뒤에 두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켄은 그의 부모님들도 이 복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일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는 다른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켄이 휴가를 나와 집에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해도 되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었던 그의 부모들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켄은 부모님을 침례하고 안수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나중에 성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비회원이었던 돈 듀이는 다른 소해정에 승선해 있는 켄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교리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바다에서 돌아오자, 돈은 찰레스톤에 있는 성찬식에서 윌리스와 켄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은 자신이 찾던 모순점을 결코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몇 달 동안 깊이 연구한 후에 그도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침례식이 끝난 후, 어느 날 밤에 돈은 배의 엔진을 살펴보고,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물문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버트가 그의 뒤로 와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몰몬경이야.”라고 돈이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몰몬이니?”

“응, 그래”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는 버트가 말하였습니다. “실은 나도 몰몬이야.” 버트는 교회에서 성장하였으나 군대에 입대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은 다음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자고 버트를 설득하였습니다. 버트는 회개의 절차를 따르기 시작하였고 인생을 바꾸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대를 하기 직전에, 돈은 제 아내와 제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두 분도 알고 계시듯, 제 가족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대를 하면 새 차를 현금으로 사기 위해 급여의 일정분을 저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돈을 보다 좋은 일, 다시 말해 저의 선교 사업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켄 또한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켄과 돈 두 사람 모두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많은 교회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켄과 돈에게 복음과 교회의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윌리스의 생활, 곧 그가 보여 준 모범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윌리스가 과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만일 그가 자신의 신앙을 버렸다면, 켄과 돈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오늘날 교회 회원이 되었을까요? 버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켄의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켄과 돈의 노력으로 또한 교회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봉사와 개심과 선행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순환 과정은 바로 의로운 말일성도 젊은이인 윌리스가 보여 준 모범, 즉 조용하지만, 힘있고 지속적인 모범이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윌리스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신이 생각했었을지도 모를 순간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표준에 따라 기꺼이 살겠다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교회의 안팎에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비추는 빛인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합당한 모범을 보이는 일에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강하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샤론 러커

**상**대편 팀이 코트를 누비는 것을 보면서 나는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지만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 농구 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었으며 키도 작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순간일 때도 계속 열심히 뛰었다.

모래빛 금발의 소년인 랜디는 득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경기를 했다. 그는 좀처럼 공을 잡아 보지 못하는 데도 마치 모든 경기가 그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코트를 이리저리 누비며 공을 따라다녔다.

그의 팀 선수들이 공을 패스해 주면 그는 그것을 들고 네 발자국을 뛰다가 멈춰서 공을 한 번 바운드 시킨 뒤 다른 선수에게 패스해 주곤 했다. 그러나 심판은 반칙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정박아인 랜디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기가 끝나기 수 초 전, 랜디가 공을 잡자 그의 팀 선수들은 그에게 축하라고 외쳤다.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랜디는 혀를 입 밖으로 늘어뜨린 채 골을 향해 공을 던졌다. 그러나 빗맞았다. 우리 팀 선수가 리바운드 볼을 잡았다. 그런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것을 랜디에게 던졌다.

“슛해!” 우리 팀 선수들이 외쳤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응원에 합세했다.

공은 골 가장자리에 맞고 튀어나왔다. 다시 랜디에게 공이 날아갔으나 다시 빗맞았다. 경기 시간은 끝났지만 좋은 울리지 않았으며 심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두들 랜디에게 다시 해보라고 소리쳤다. 이때 공이 아치형을 그리며 네트에 꽂혀서 마지막 두 점은 랜디의 것이 되었다.

관객들은 흥분했으며 양 팀의 선수들은 랜디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리고 나는 그가 정말 그 게임에서 이겼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게임의 모든 선수가 그랬다. 그들은 훌륭하고 너그러운 참된 스포츠맨이었다. 그 날밤 노여움이나 실망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랑도 놀림도 없었다. 패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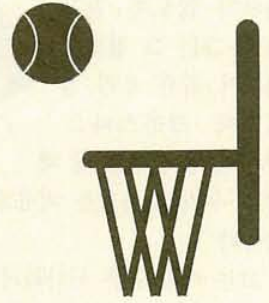


그림: 데이비드 리버



# 감 독 을 진 정 으 로

아넷트 팩스맨 보웬  
사진 촬영 : 스티브 번디슨

**나**의 남편인 스코트는 우리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와드 회원들에게 부름을 수행하는 사람의 방법에 대해 비판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집 지붕에 크리스마스 실의 장식 전구를 달 때 겪은 우리의 경험을 비유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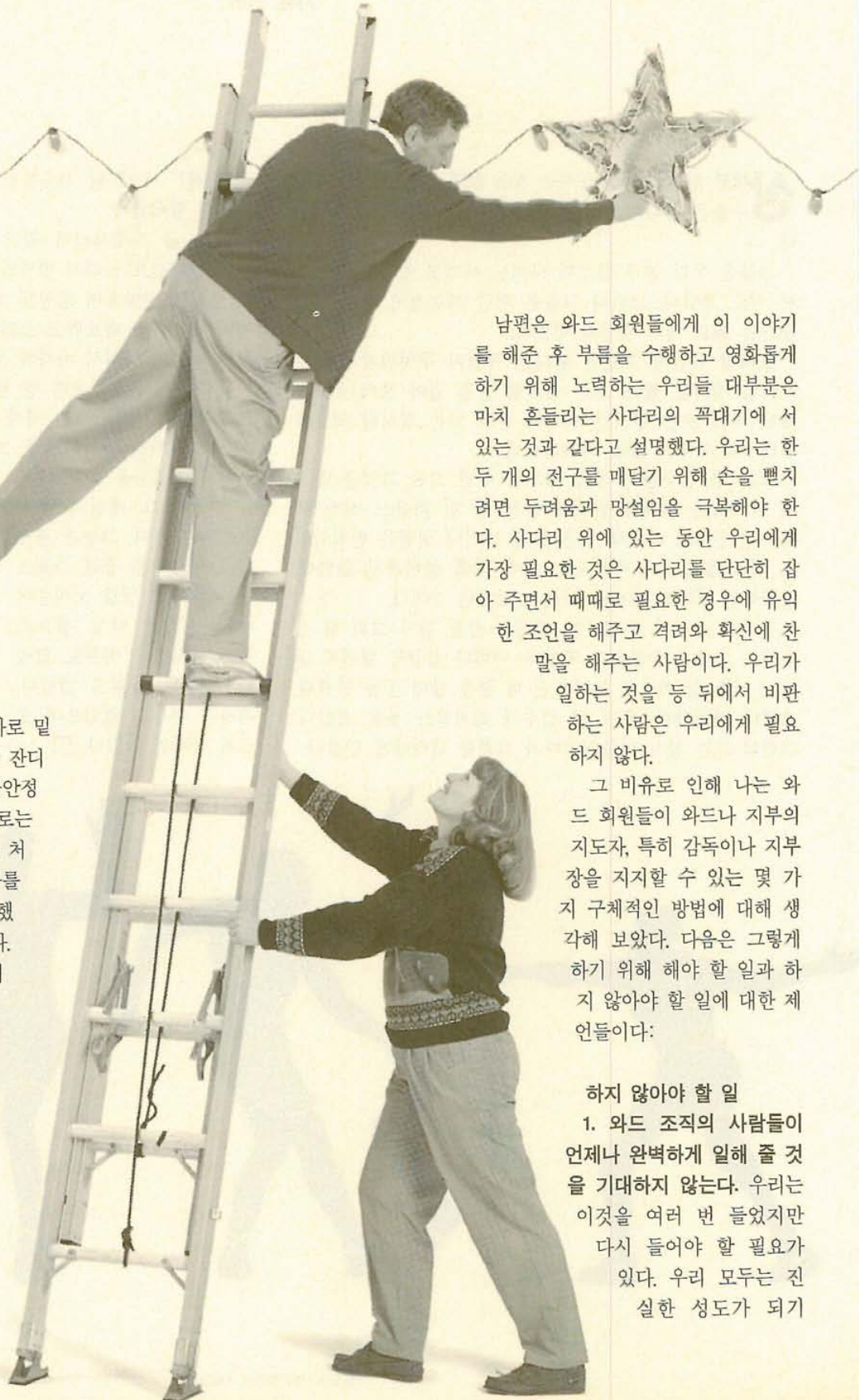
그는 아주 높은 사다리의 바로 밑에 있었다. 그 사다리는 집 앞 잔디밭의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처마 밑의 여러 들보에다 전구를 매달고 있었다. 높아서 불안했기 때문에 그는 약간 걱정했다. 나는 밑에서 사다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가장 먼 들보 쪽으로 손을 뻗치면서 남편은 내게 "이건 될지 모르겠어! 떨어져서 어딘가가 부러지면 정말 곤란한데."라고 외쳤다. 나는 웃으면서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손을 뻗쳐서 마지막 전구를 매달았다.

남편은 와드 회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후 부름을 수행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마치 흔들리는 사다리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한 두 개의 전구를 매달기 위해 손을 뻗치려면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해야 한다. 사다리 위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다리를 단단히 잡아 주면서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격려와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등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 비유로 인해 나는 와드 회원들이 와드나 지부의 지도자, 특히 감독이나 지부장을 지지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제안들이다:

## 하지 않아야 할 일

1. 와드 조직의 사람들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



# 지 지 하 는 방 법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실수한다. 이것은 "존스 형제"가 전화 메시지를 전해 주겠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음을 뜻한다. "스미스 자매"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만큼 공과를 가르칠 준비를 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교회 조직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조직되었지만 그 조직이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 줄 수는 없다. 어떤 회원은 이웃이나 동료 직원과의 사교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부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가족에게는 이삿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를 빌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3.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생각없이 하는 말, 성난 표현, 요령 없는 제언 및 그 밖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워드 지도자들의 시간과 힘을 많이 빼앗는다. 사람들이 감독에게 워드의 누군가가 말한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또는 가족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할 때 귀중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4. 불평하지 않는다.** 사실, 계속 험담하는 것이나 우리 배우자와 친구들 또는 우리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게 만드는 나쁜 감정을 품는 것에 대해 가책을 느낄 수도 있을 때에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레이먼

과 레뮤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떨어뜨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 불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에게 가서 깨끗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5.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조직의 문제를 갖고 감독단을 찾아가지 않는다.** 특정한 워드 조직의 결점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있으며 조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 반면에 여러분이 솔선하여 일하고 봉사한다면 워드 조직은 순조롭게 움직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영향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방문 교사와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부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의 짐이 아주 가볍게 될 것이다.

**6. 정보를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 감독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먼저 건물 사용 일정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조 조직 지도자와 정원회 지도자에게 인쇄된 워드 인명록과 일정표가 있는지 알아본다.

**7. 직장으로 전화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직접 받았거나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닌 한 지도자의 직장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어떤 지도자들은 워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때로 지도자들은 일 때문에 회원들의 필요 사항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지도자는 완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 하지만, 아무리 일이 힘들지라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한다.

**8. 감독이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에 참석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무책임하거나 여러분의 부름에 대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에게 선약이 있거나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대체로 감독은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수요일 밤에 우리 워드의 감독은 보이 스카우트의 유년대 모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로드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워드의 어떤 회원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두 군데나 전화를 해줄 수 없었다.

## 해야 할 일

**1. 지도자의 우선 순위를 이해한다.** 남편이 감독으로 부름받은 후, 우리는 가족끼리의 시간을 잘 보내려고 주의 깊게 노력했다. 특히 우리는 월요일 밤에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2. 정직하게 의견을 말해 준다.** 개인 접견을 할 때나 모임을 할 때 친절하고 솔직하게 말한다. 감독은 영감과 인도

를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사려 깊은 의견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관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게 알려 준다. 그러면 그는 정확하고 영감받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도움이 필요하면 감독에게 간다.** 그러나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그를 개입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만일 가족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 교사나 가정 복음 교사와 같이 여러분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필요한 도움을 얻도록 노력한다. 그들이 도와줄 수 없다면 여러분이 속한 정원회나 보조 조직 회장에게 연락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참으로 감독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전화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 때때로 그는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는 사람들이 감독을 만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약속을 맺고자 할 때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4. 부름을 주고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한다.** 와드 조직의 역원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은 끝없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여러

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감독단과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은 와드 조직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한 직책에 대한 변화는 와드 전체에 다른 변화들을 가져 올 수 있다. 또는 지도자들은 부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생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5. 지도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도 실수하며 지친다. 때때로 그들은 전화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단순히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들은 종종 틀린 말을 하기도 한다. 의심스러운 점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설해 준다. 모든 지도자는 나름대로 약점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6. 감사를 표현다.**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도자들은 어떤 찬사를 듣든 안 듣든 계속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상냥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 상황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경험을 감미롭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특별히 와드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중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와드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가 자원 봉사자의 조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7. 감독단과 와드의 지도자들 및 와드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와드의 회원들은 내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나를 위해 금식을 해준 적이 있었다. 수술을 받은 후 나는 나를 위해 회원들이 드린 기도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다. 그 기도는 내가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감독은 종종 와드 회원들의 기도를 통해 강화되고 힘을 얻는다.

**8. 성전에 간다.** 다행히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기적인 성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커지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자주 가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영적인 깨우침을 가져다 줄 것이다.

**9. 서로 사랑한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된다. 세계 도처의 다른 와드나 지부 회원들 처럼 우리 와드의 회원들도 이 권유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을 표하고 경청하고 서로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행동을 한다. 그 결과, 우리 와드의 회원 수는 늘어났으며 사랑이 깊어지고 회원들은 서로에게 문자 그대로 구원의 천사가 되었다.

**10.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와드는 서로서로 봉사하면서 감탄과 실망, 슬픔과 기쁨, 지지받는 기쁨과 같이 가족끼리 느끼는 모든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많은 면에서 와드는 가족과 비슷하다.

남편인 스코트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는 때때로 기도하기 전에  
와드 회원의 명단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 사항과 축복에 대한 목록을 작성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가족,  
즉 우리의 세 어린 아들과 가까운 친  
척뿐만 아니라 우리 와드의 훌륭한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나는 때때로 적절한 경우에 남  
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와드 회  
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  
리 모두는 와드 회원들의 사랑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삶의 고난에 직  
면할 때에도 우리들 각자는 와드 지도  
자들과 복음을 함께 나눈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지지받을 때 힘을 얻는

다. 그들의 보살핌을 통해 우리는 구세  
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  
남편이 감독으로 봉사하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와드가 발전하는 것을 지  
켜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놀  
랍고 만족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주로  
느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들의 사다리 곁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안겨 준다. 우리 와드의 회원들이 높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모두 격려와 확신  
에 찬 말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



# 나의 성경

소나 벨로린

**베** 네수엘라의 어린 소녀 시절부터 나는 나의 성경을 원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이 되어서 나의 구세주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나서야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사겠다고 결심하였다.

교회는 우리 지역에 새로 생겼으므로 책을 주문하는 것은 누군가가 선교 본부로 갈 때만 가능하였다. 복음 선교사인 우리 지부장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자신이 삼일 간 선교부 사무실로 여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에게 성경이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현재 내게는 돈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선교부 사무실로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겠다고 했다.

지부장이 떠나는 날이 되었다. 내게는 여전히 돈이 없었으므로 나는 주님께 간구하였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근심은 사라지고 나는 큰 평안을 느꼈다. 무릎을 꿇고 막 일어난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 보니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바로 뒷집에 살아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부탁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잠시 동안 아기를 좀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



# “죄를 더욱 슬퍼함”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니파이삼서 9:13)

2500여 년 이전에 예언자 니파이는 죄를 비통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니파이이서 4:17)

그러나 니파이는 또한 희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어 또한 주께 고하여,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나이다. 진정 나의 영육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당신 안에서 기뻐하겠나이다라고 하며”(니파이이서 4:19,30)

## 죄를 슬퍼하는 것은 회개로 이끌어 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으므로 회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다는 것을 인식할 때 느끼는 슬픔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슬픔에는 부끄러움, 수치심, 후회의 감정 또는 고뇌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고린도후서 7:10)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그 괴로움으로 회개하게 되”(엘마서 42:29)도록 우

리를 괴롭힙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슬픔과 후회와 보상 및 결심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용서를 간구하는 것과 더 잘하겠다는 성실하고 정직한 약속을 포함합니다.”(앤사인, 1994년 9월호, 76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런 종류의 슬픔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성신을 구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우리는 죄의 결과를 더욱 분명하게 압니다. 성신이 떠나는 것도 그런 죄의 결과에 포함됩니다. 어떤 자매는 자신의 생활에서 인도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저는 기도하면서 대충 지나쳤거나 합

리화시켰던 많은 ‘사소한’ 죄에 대해 가책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회개는 기쁨을 안겨 줌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고 치유해 주시는 권세를 구하면서 그분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죄와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모든 분들께, 우리는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야말로 완전한 용서로 인도되는 길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물론경에서 엘마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을 기억하였을 때 그의 회개는 “그를 위로 들어올려”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20)

엘마가 경험한 것과 같은 평안과 희망과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가? □

그림 : 레빈 스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돈 엘 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를 만난다는 것은 따뜻하고 품위있으며 활기에 찬 한 친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를 진실로 알려면, 먼저 그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 순종을 잘하는 소년

그는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손수 지은 집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인 엘리스를 통하여, 유타 주 딕 시의 척박한 땅에서 생계를 일구었던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후손이 되었다. 그의 선조 중에는 세인트 조지의 초대 시장인 리차드 벤클리, 이 마을 인근의 파인 벨리의 첫 번째 정착민인 윌리엄 스노우, 로버트 가드너, 솔트레이크와 세인트 조지 계곡에서 최초로 밭을 간 윌리엄 카터 등이 있다.

제프리 홀런드의 아버지인 프랭크는 좀 독특한 개척자였다. 아일랜드인 개종자인 프랭크는 중학교 일학년 을 다니다 말았지만, 혼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세인트 조지에서 공인 회계사 겸 시민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가 물몬경을 무척 좋아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의 주일학교 공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자기 또래 소년들을 위한 야구 팀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마을에 어린이 야구단을 조직할 정도였다.

프랭크 디 홀런드와 엘리스 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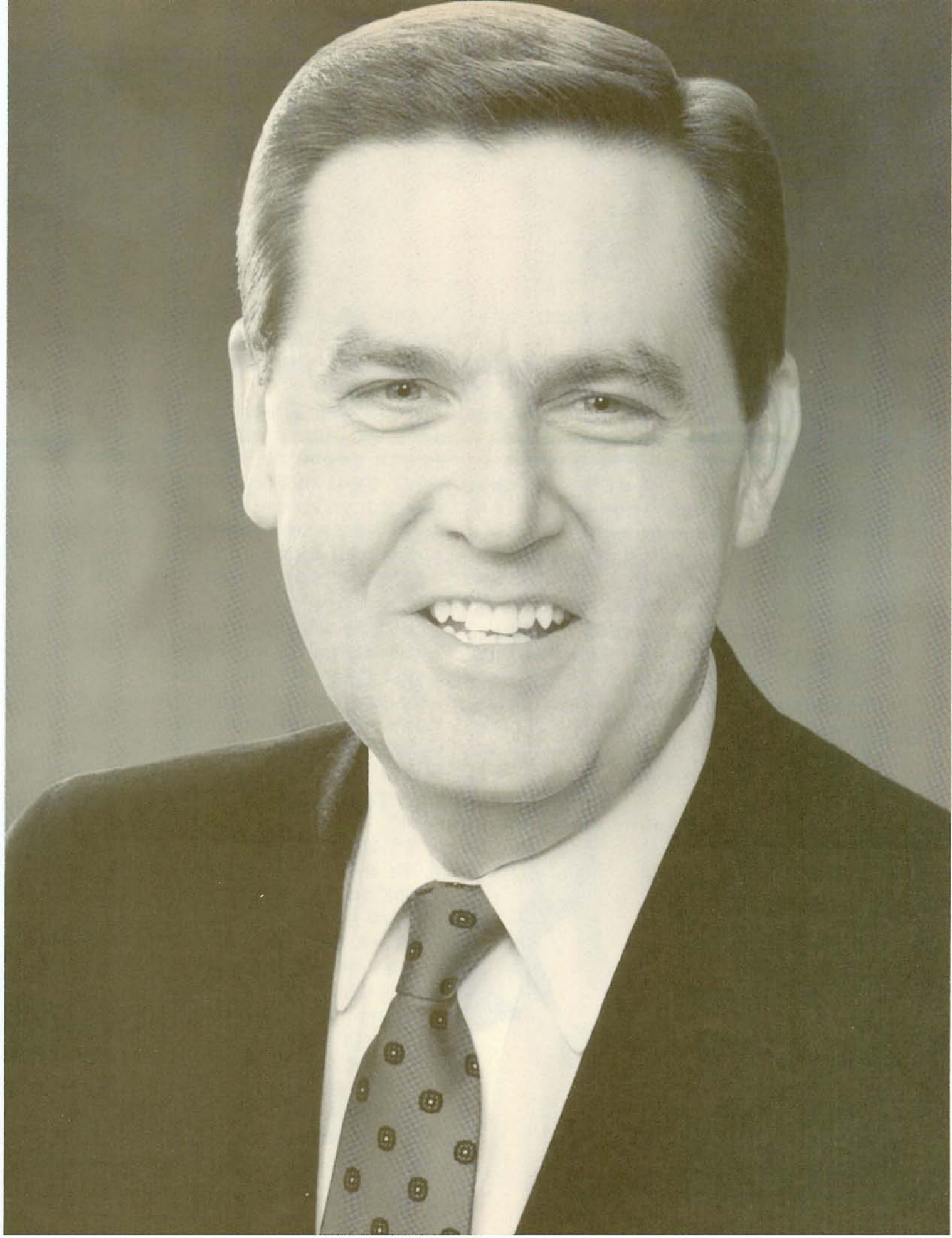
틀리 홀런드의 현재 생존하는 세 자녀인 데니스와 제프리 및 데비는 부모의 도덕적, 성격적인 장점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 (제프리와 데비의 출생 사이에 태어난 스코트 벤틀리 홀런드는 유아기에 사망했다.)

데비 홀런드 밀렛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무런 보답이나 기대없이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영원히 남에게 베푸는 사상을 실천하였으며, 제프도 그 점에서 닮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데니스와 제프리는 아일랜드인의 매력과 기질을 물려받았다고 엘리스는 말한다. "아이들은 평범한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배를 잡고 웃게 할 정도로 재미있게 말하는 재능이 있어요." 또한 제프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면 깊이 명상에 잠겨 드는 "영적인 충만감"을 갖고 있다.

홀런드 장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개성이 기지, 따뜻함, 사심 없음 및 영성으로 독특하게 배합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의 오랜 친구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홀런드 장로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는 "특별한 감수성으로 결합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천부적인 교사인 그는 항상 사람들을 지지하고 향상시켜 주며 그들을 그분에게로 이끕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브리감 영 대학교 미식 축구 팀의 1980년도  
홀리데이 비올 축구 대회 참가 기간 동안  
아들 데이비드와 함께



자기가 그분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홀런드 장로님은 홀런드 자매님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 자매님은 그분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그분들은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계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생활해 오면서 서로를 형성시켜 주며 지지해 주기 위해 돕는 방식일 것이다.

제프리 로이 홀런드는 1940년 12월 3일에 태어났다. 그는 시골의 조그만 마을인 세인트 조지에서 성장했다. “저는 목가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프리 홀런드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일과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홀런드 장로는 그의 어머니를 가정의 님으로서 기억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어린 시절에 항상 함께 했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에 따라 항상 생활하기를 원하도록 인도해 준 힘이었다.

그는 순종을 잘하는 소년이었다고 엘리스 홀런드는 말한다. 한번은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파티에 가되 열 시까지 돌아오라고 하였다. 제프리는 시계를 보고 집에 도착할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세인트

소년 제프리 홀런드(위)는 전형적인 소도시에서 소년 시절을 즐겼다. 그는 젊은이로서 각종 운동 경기에 참가했다.(오른쪽)

트 조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질주했다. “그는 제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교회에서 지냈으며, 언제나 자신의 신권 의무를 잘 수행했어요.”라고 엘리스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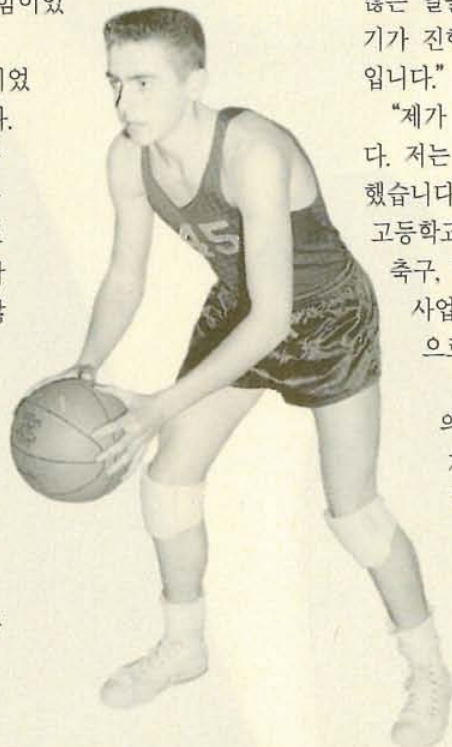
또한 그는 친구를 잘 사귀었다. 어린 아이들은 그가 그들에게 잘 대해 주었으므로 그를 좋아했다. 제프리가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했을 때 (그는 또한 신문 배달도 했으며 식품점에서도 일했다), 사람들은 일부러 그를 찾아서 자기 차를 들보게 했다. 그의 사교성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사랑해 왔으며, 성장하면서 세인트 조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제프 홀런드는 타고난 지도자였다고 세인트 조지의 전 시장이자 딕 시 대학의 사무처장인 칼 부룩스는 말한다. “제프는 그의 무리를 교회로 이끌어 오거나 그 곳에서 멀어지게 할 위치에 있었으며, 그는 항상 사람들이 교회로 향해 가도록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재미를 빼앗아 간다고 느끼는 반면, 제프 홀런드는 그들 둘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그가 많은 일에 흥미를 느꼈고 또 많은 일을 했다”라고 브룩스 형제는 말한다. “만일 구기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그분은 함께 참여하거나 구경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제 생활의 주된 기쁨은 스포츠였습니다.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동 팀에서 경기를 했습니다.”라고 홀런드 장로는 회상한다. 그는 1958년 딕 시 고등학교의 주 대표 미식 축구 및 농구 팀의 일원이었으며, 축구, 농구, 달리기 및 야구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딕 시 대학 농구 팀의 공동 주장으로서 농구 대회에 우승에 기여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의 이점 중 하나는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소녀와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페트리시아 테리는 그 학교 운동 팀의 응원 단장이었다. 그녀의 부모인 메이저와 마릴라 테리는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세인트 조지로 이사왔다. 그녀와 제프는 제프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 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





1970년대 중반 세 자녀와 함께 포즈를 취한 프랭크와 엘리스 홀런드 (위), 제프리 (왼쪽), 데비와 테니스.

### 천부적인 교사

홀런드 장로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었고 세미나리를 즐겨 배웠지만, 모든 합당한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은 시대에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점에 대해 그것은 패트의 신앙 덕분이라고 말한다. 패트의 부모는 패트가 어릴 때부터 강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홀런드 장로는 “그녀의 신앙은 언제나 제가 아는 누구의 신앙보다도 더욱 순수하고 강력하고 굳건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데이트 기간 중에 패트는 제프보다도 먼저 제프가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한 때를 “인생의 주요한 영적인 전환점이자” 성숙한 복음 성장 과정에서의 “시작의 시초”라고 회상한다. 티 보우링 우드베리 선교부장 아래서 그는 선교사로서 경험을 쌓고 성장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선교부장인 칠십인의 메리온 디 행스 장로의 도착과 함께 홀런드의 미래는 영원히 바뀌었다.

“행스 선교부장님은 제게 경전 중에서도 특히 몰몬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셨습니다.”라고 홀런드 장로는 말한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홀런드 장로는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그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교사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제프리 홀런드는 타고난 교사입니다.”라고 현재 칠십인 명예 회원인 행스 장로는 말한다. “그분은 신사요, 학자이자 외교관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교사입니다.”

그의 선교부장으로서, 행스 장로는 젊은 홀런드 장로에게서 특별한 품성을 발견하였으며, 그를 선교 훈련자 여행 팀에 소속하도록 했다. 그들의 임무는 다른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행스 장로는 제

프리 홀런드가 “훌륭하게 제자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몰몬경을 가르치라는 선교부장의 부름에 부지런히 응하였다고 말한다. 행스 장로는 그 책에 대한 홀런드 장로의 사랑과 그것을 가르치는 그의 능력은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성장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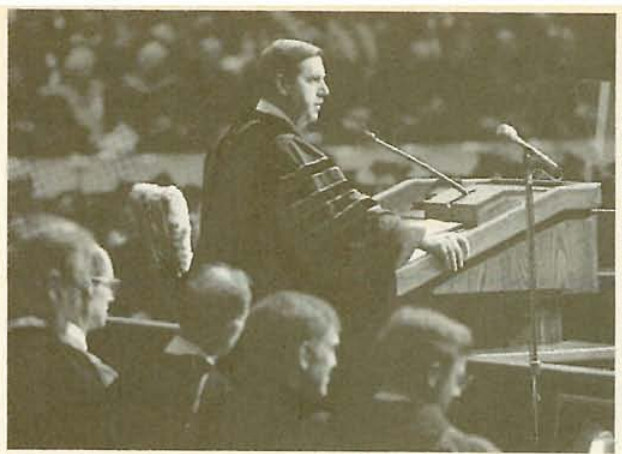
프랭크와 엘리스 홀런드는 아들이 영국에서 봉사하는 동안 영국 선교부로 부름받았다. 엘리스는 아들이 선교본부에서 나오면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유일한 선교사라고 말했음을 회상하며 웃음짓는다. 그들의 부모는 제프와 페트가 1963년 6월 7일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결혼했을 때에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프랭크 홀런드는 차남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았으나 1977년 66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

많은 다른 젊은 부부처럼, 제프와 패트는 고학하면서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녔다. 1965년 졸업이 가까와 올 즈음, 그는 자신의 전공인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때 그가 그 대학교에서 종교 교육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종교 교육을 시간제로 가르칠 기회가 왔다. 그는 그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으며, 1966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교회 교육 기구의 신학 연구원 강사로 고용된 것을 특권이라고 느꼈다.

캘리포니아 주 헤이워드에 있는 몇 군데 신학 연구원에서 일년간 가르친 후, 그는 시애틀 소재 신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던 시애틀 성전장인 브렌트 내쉬는 제프리 홀런드가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이 그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신학 연구원에 일부 젊은이들은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에 관한 근거없는 낭설이 대학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던 때였으나, 친구를 잘 사귀고 마음을 움직이는 젊은 신학 연구원 원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과 조직 사이에 나쁜 감정은 가라앉게 되었다. 그는 노변의 모임 및 기타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자주 초청받는 연사가 되었으며 그의 아내도 자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평생 종사하기를 갈망하던 제프는



1980년대 제프리 홀런드 생애의 여러 장면: 한 명문 대학교의 총장으로 봉직함(위), 스펜서 더블류 대관장과 함께(오른쪽), 그의 외향적인 성격과 따뜻한 마음은 어느 곳에서도 그의 귀중한 자산이었다.(아래)



박사 학위를 포함한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그는 몇 해 전 예일 대학교 소개 책자를 펼쳐 보고서 언젠가 그 곳에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워싱턴 대학교의 예일 대 출신 교수 한 분이 그에게 예일 대학교에서 미국학 연구를 하도록 추천했으며 홀런드 가족은 1970년 코네티컷 주 뉴 헤븐으로 이사했다.

### 봉사하는 방법을 배움

제프와 페트가 결혼한 초기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발전하는 시기였다.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 와드에서 페트는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제프는 시애틀에서 독신자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했다. 두 사람이 뉴 헤븐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페트는 다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홀런드 장로는 그의 교회 부름도 뉴 잉글랜드로 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이제는 믿는다고 말한다. “제가 실제로 받게 된 것은 교회 행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해 배우는 속성 과정이었다. 코네티컷 주를 방문한 기간 동안 매서 테리는 그의 사위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 “매우 먼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지만, 제프리 홀런드는 자신의 부름에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경험은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두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과 지역 대표로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애틀과 뉴 헤븐에서 5년 동안 홀런드 가족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에겐 가족이 언제나 우선 순위였다고 말한다. 제프 홀런드는 자녀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으며 교회 봉사나 활동에도 데려갈 정도였다.

매튜 홀런드는 1966년에 태어났으며, 매리 엘리스는 1969년에 태어났고, (최근에 체코 공화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데이비드 프랭크는 1973년에 태어났다. 현





재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매튜는 영적인 훈련이 일상적인 가족 생활의 일부였다고 회상한다. 그는 열두 살 때 야외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느끼는 첫번째 경험을 하였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어느 시골 오지의 탐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두 갈래 길에 이르게 되었으나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날은 어두웠으며 낮은 지역에서 어둠을 맞게 될 판이었다. 제프리 홀런드는 이 때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 아들에게 방향을 잡기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아들에게 어떤 것을 느꼈는지 물어 보았으며, 매트는 그들이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고 대답했다. 그도 똑같이 느꼈다고 대답하며 아버지는 트럭을 왼쪽으로 몰았다. 십분 후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으며 다른 길로 가기 위해 차를 되돌렸다.

매튜는 잠시 생각해 본 후 아버지에게 그들이 드린 기도 에 대해 왜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질문했다. 그의 아버지는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그들에게 정보(이 경우에는 어느 길이 틀린 길인 지를 알려 주는 것)를 주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나머지 다른 길이 눈에 익숙하지 않고 어느 곳인지 알기 어렵더라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 더욱 확대되는 영향력

홀런드 가족이 1972년 가을에 뉴 헤븐을 떠나 유타 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제프리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몇 달간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에서 가르친 후 교회의 새로운 메기세텍 신권 상호향상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 직책을 맡은 그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와 엘 톰 페리 장로 및 매리온 디 행스 장로와 함께 일했다. 행스 장로는 제프리 홀런드 장로가 한 일이 독신 성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 프로그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후 1974년에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육학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신입 교수로서 연령상으로도 젊은 학장으

로서, 그는 그 대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위한 강력한 중심 역할을 하는 데 자신의 외교적으로 숙련된 자질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

1976년, 그는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으로 지명받았다. 그 후 1980년에 그는 대관장단과 함께 하는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뒤를 이어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김볼 대관장님, 농담이시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홀런드 형제님, 이 방에서 우리는 별로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는 홀런드 장로가 항상 그 곳에서 느끼는 영과 그 대학교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방식 때문에 “저에게 소중한 곳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대학 교수이자 총장으로서 그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큰 기쁨을 얻었다.

항상 그렇듯이 홀런드 자매는 그가 그 대학교에서 재직할 때 그의 옆에 함께 있었으며 나름대로 독특한 기여를 했다. “페트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녀의 남편은 말한다. “아내는 평생 동안 계속 자신의 시간과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홀런드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관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커다란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들 부부는 한 팀으로서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수단 가운데에는 수많은 중요한 학생 모임이 있었다. 그것을 학생들은 “제프와 페트 쇼”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 부부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거의 일 대 일로 대면하여 친근하게 잡담하듯이 권고와 경험담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 “너무 가까운 사이”

그들이 봉사하는 데 헌신한 것은 단지 공인으로서의 행동만이 아니었다고 브리감 영 대학교 교무처장인 브르스 시 헤이픈은 말한다. 그는 세이트 조지에서 성장했으며 홀런드 가족을 사실상 평생 동안 알아 왔다.

학생들이 그들 부부에게 언제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했지만 홀런드 가족은 대학교 구내에 있는 총장 자택 내에 가족만을 위한 장소를 가까스로 마련했다. 홀런드 자매는 가족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이어 이틀 밤을 집에서 떠나 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 가족과 가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으므로, 남편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부 청녀 회장 보좌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신앙과 희생의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녀와 남편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 기간 동안, 홀런드 부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마다 만날 수 있음을 느꼈다. 매리 엘리스(현재는 리 맥칸 부인이며 홀런드 부부의 두 손자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을 느꼈다. 그의 자녀가 놀이, 연주 및 기타 중요한 활동을 할 때면 그는 그 곳에 함께 했다.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딸이 즐기라고 생각한 부녀간의 활동을 자상하게 계획했다고 매리는 말한다. 그는 매리가 성장할 때 여성이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이해하게 도와줌으로써 매리를 강화시켰다.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기꺼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던 일을 회상한다. 제프리 홀런드는 어린 아들과 함께 며칠간 유타주 남부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해 대학 내 업무를 조정할 일도 있다. 나중에 홀런드 장로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후 가족들이 이사를 준비할 때, 그는 데이비드가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축구 연습을 하도록 거의 두 달 동안 매일 한 시간을 차로 태워다 주었다.

매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은 가족이 저녁 식탁에서 함께 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매일 저녁이 웃음, 칭찬, 흥미로운 대화, 간증, 가르침과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찬 가정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빠가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프리 홀런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족들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끌어 냈다. 그는 수많은 교육 조직에 참여해야 했다. 그는 대학교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으는 캠페인을 포함한 주요 공익 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가 우수한 운동 선수들을 우대하도록 조치했다. 총장으로서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건립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히려 많은 반대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 사업을 파우스트 장로와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일했다. 그는 헌터 대관장과 “감미로운 교우 관계”를 자신의 일생에서 특별한 축복이었다고 말한다.

### “나의 가장 큰 기쁨”

그러한 교우 관계는 홀런드 장로가 1989년 4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더욱 가까워졌으며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졌다.

데니스 홀런드는 그의 동생이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제프가 정말 원했던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그와 같은 목표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항상 확신했지만, 그 교실의 크기와 학생 수는 제프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1994년 6월 23일에 일어난 사건에 홀런드 장로는 매우 놀랐다. 오전 7시 30분 헌터 대관장은 아무런 암시도 없이 홀런드 장로에게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오에 홀런드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아 헌터 대관장에 의해 그 정원회에 소개된 후 대관장에게서 성임받았다.

부름받을 당시, 그는 헌터 대관장이 그날 오전의 업무를 정력적으로 매우 빠르면서도 정확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일생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증거라고 홀런드 장로는 말한다. 그는 헌터 대관장이 교회를 이끌도록 건강이 허락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느꼈다고 말한다. “저는 주님의 손이 그분의 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위) 1960년대 중반 제프리 홀런드와 그의 아내 페트와 그들의 장남 매트. (왼쪽)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연설함. (아래) 1989년에 그의 아내 및 가족과 함께: 매트, 페트, 매리 (앞은 사람), 데이비드와 제프리 (서있는 사람).



매리 맥킨은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온 것이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부모 사이의 강한 유대 관계가 그들 모두에게 힘을 주고 그가 매일 해야 할 과업에 대처하도록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매트 홀런드는 부모님들이 서로를 깊이 존중해 주신다고 말한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권 지도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권고와 영감을 구합니다.”

홀런드 장로는 아내가 지닌 영적인 민감성, 지혜, 깊은 신앙 및 사랑이 그의 생애에 축복이 되어 왔다고 하며, “그녀와 결혼한 것이 기쁩니다.”라고 말한다.

홀런드 자매는 그들이 정서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서로를 강화시키고 성장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남편이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 데 오랫동안 익숙해졌다고 덧붙인다. 그는 영을 고양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낙담한 사람이 구세주를 통해 희망이 있음을 보도록 도와준다. 그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본다. “남편은 믿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의 성임에 따른 일련의 행사가 끝난 후 조용한 순간에, 홀런드 장로는 영혼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성임받은 직분에 대한 “말할 수 없이 큰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부름은 십이사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대표할 것을” 요구하며 “그 직분에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 부름은 또한 “전 기독교계가 ‘사도’라는 명칭에 부여하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누가 보더라도 그 직분에 누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깊은 각오를 갖게 해 준다.

그는 자신이 성임받은 그 직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평생 동안 자신을 수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며 시작한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구세주의 생애와 그분의 복음의 회복이 신성함을 증거하는 데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

# 어 린 아 이 들 에

케이 린 웨이크 필드

그림 : 마리엘라 몬테로소 지, 9세, 코스타리카; 필리스 쿠르 영상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아이들로부터 사랑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말해 주지 않았나?” 나는 속으로 자문해 보았다. 나는 남편과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서 앉아서 장남인 조엘의 생명을 위해 기도드렸다. 나는 아들의 가늘고 찬 손을 꼭 잡고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아마도 내가 조엘에게 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만한 일을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에게 한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

나는 조엘이 가까스로 살아난 이후로 그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지 모른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자주, 더욱 쉽게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조엘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후로 우리는 인생은 짧은 것이며,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 줄 기회를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다. 이 점은 특히 자녀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큰 기쁨과 안전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계 귀 를 기 울 임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구세주께서는 바운티 풀 땅에서 니파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교 나서... 우시더라.”(니파이삼서 17:21-22)

불행히도, 우리의 “어린 것들”(니파이삼서

17:23)에는 구세주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대우를 받는 아이들이 있다.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과 고민과 좌절감만을 경험한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기쁨은 너무 짧다.

우리 부모들이 당면한 문제는 현대의 바쁜 생활 때문에 자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중요함을 잇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죄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에 가득 차서 (모로나이서 8:12 참조) 세상에 왔음을 알





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마음을 그들에게 맞춰 준다면 특히 사랑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전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미셸린 피 그레슬리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 준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말에 좀더 귀기울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귀기울여 들으십시오.”(성도의 벗, 1994년 10월호, 42쪽 참조)

전세계 150여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최근에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이 부모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질문받았다. 부모가 사랑한다는 증거로써, 거의 모두가 말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봉사와 애정이라 단순한 선물을 준다는 점이었다. 값비싼 선물을 말한 어린이는 별로 없었다. 한 어린이는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응답을 되풀이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제가 예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프랑스 푸르즈 지방에 사는 열 살인 베나민 듀랑은 부모님이 가정의 밤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사랑함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부모님은 제게 경전과 경전 이야기를 읽어 주시며, 저와 함께 농구, 축구, 럭비 등을 함께 해주십니다.”

아홉 살인 바넷사 바르코리에는 부모님이 종종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님은 저에게 잘 대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안아 주십니다.”라고 바넷사는 말한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잘 돌보아 주심으로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열 한 살인 로리안 꾸베리에는 덧붙여 말한다.

이탈리아에 사는 아홉 살인 엠마누엘 디마우로와 여섯 살인 마리엘라 루이사 푸글리에는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함께 놀입니다.”라고 루이사는 말한다. “그분들은 저에게 사랑을 보여 주시며, 항상 제 옆에 앉으십니다.”라고 엠마누엘은 덧붙여 말한다.

스페인 지혼에 사는 열 살인 셰일라 페온 프렌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은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음식을 먹여 주시고, 함께 놀아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예배당으로 데려가 주시며, 경





전을 저에게 읽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쉐일라의 일곱 살난 남동생인 오마르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은 저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십니다. 또 저를 안아 주시고 뽀뽀해 주십니다. 제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십니다.”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 사는 일곱 살난 훌리오 이노센시오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주셨겠죠.”라고 훌리오는 말한다.

열 살인 라울 발라다레스 페레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부모님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심으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며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또한 열 살인 이스라엘 라미리즈는 “제가 슬플 때, 부모님이 저의 기분을 달래 주심으로, 또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심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안다고 말한다.

코네티컷트 하트포드에 있는 스페인 지부에 다니는 열 살인 카를로스 티라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워싱턴 켄트에 사는 아홉 살인 쉐리 기싱어는 “부모님이 자신의 간증을 전해 주심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다호 제롬 출신인 열한 살인 제이미 크로지어는 부모의 사랑을 제이미의 부모가 “제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참아 주시며,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와드에 있는 아홉 살인 라르스 크리스찬슨은 “저의 마음이 저에게 알려 줌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해 주며, 주님이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라니...”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이사서 4:14-15)

어린이들은 부모에게서 사랑과 봉사를 배운다. 아들과 딸을 위탁받은 우리는 성스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린이들을 사랑, 신앙의 불꽃 및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심으로 감싸주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엠 러셀 벨러드, 성도의 벗, 1994년 10월호, 40쪽)

우리가 이러한 성스러운 책임에 따라 가장 잘 생활하는 방법에 관한 제언이 필요하다면, 단지 우리의 고귀한 어린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



# 기 회 를 포 착 함

클라우디아 엘리야스

다섯 살된 매리가 “나도 고치 안으로 들어가면 나비가 될까요?”라고 물었다. 고치와 번데기와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가! 때와 장소가 적절하다면 유충을 찾아 그것이 수 주에 걸쳐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바쁜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종종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의를 심어 줄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지침이 있다.

자녀들의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귀기울인다. 여러분이 귀기울일 때, 자녀의 질문과 이야기들을 발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개미는 무엇을 먹지?”, “왜 귀뚜라미는 여름보다 가을에 더 천천히 움직이지?”, “니 파이는 레이먼과 레뮤엘을 사랑했나?” 등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흥미있는 사실들을 깨닫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

또한 여러분은 자녀의 질문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어떤 어린이가 학교에서 낙농 농장을 방문하여 기계로 소젖 짜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행이 그 곳을 떠날 때, 그 아이는 농부의 팔을 끌어당기며 “어떻게 소젖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 현명한 농부는 돌아서서 그 소중한 마리에게서 기계를 떼어 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아이가 소에게서 젖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직접 손으로 젖을 짜다.

자녀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귀기울여 듣고 그들의 질문과 이야기를 통찰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다면, 그들은 이해력과 또 배우고 답을 얻으려는 소망을 지니고 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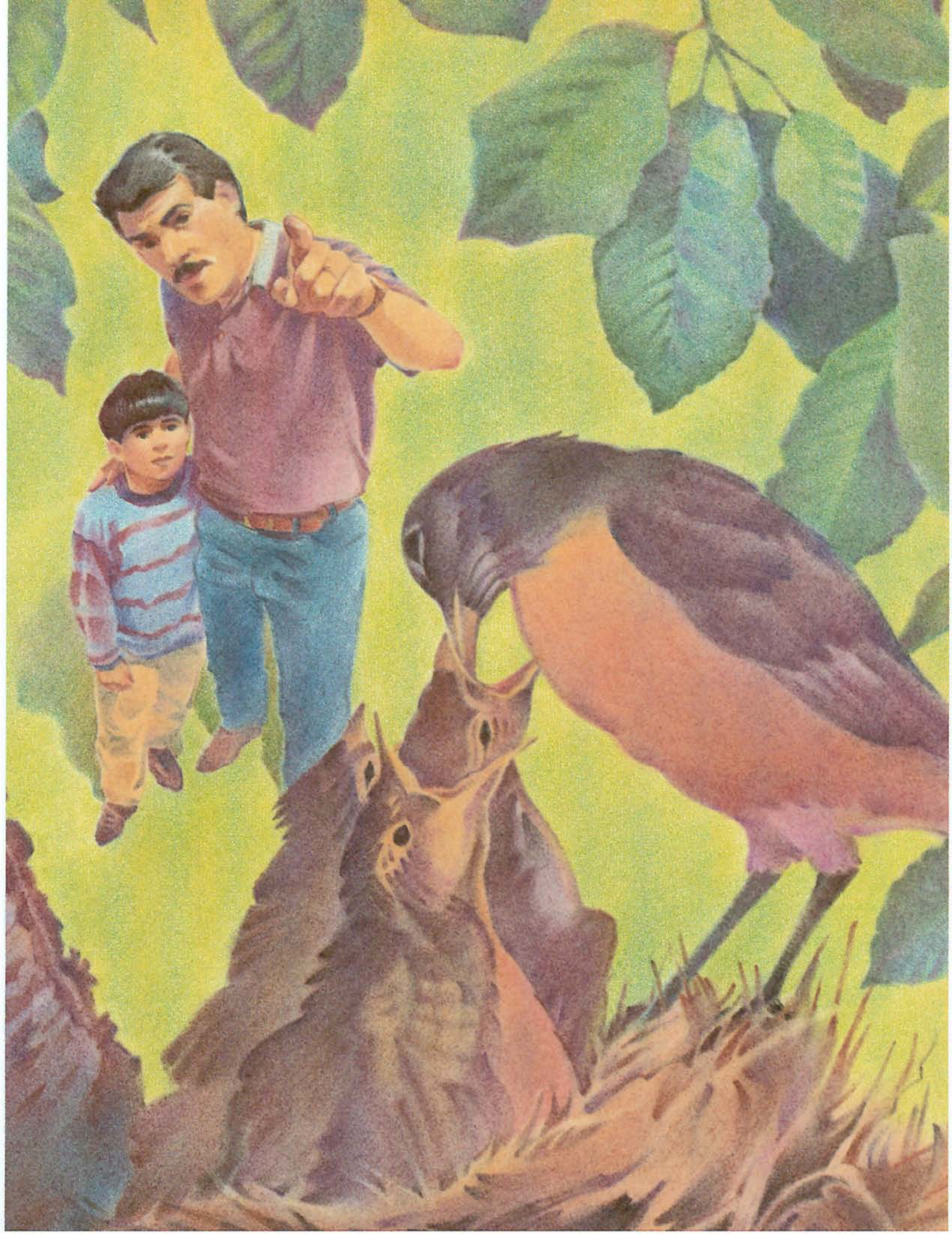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색하도록 격려해 준다. 한 가지 방법은 “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또는 “...한다면 넌 어떻게 할거니?”와 같이 대답에 제한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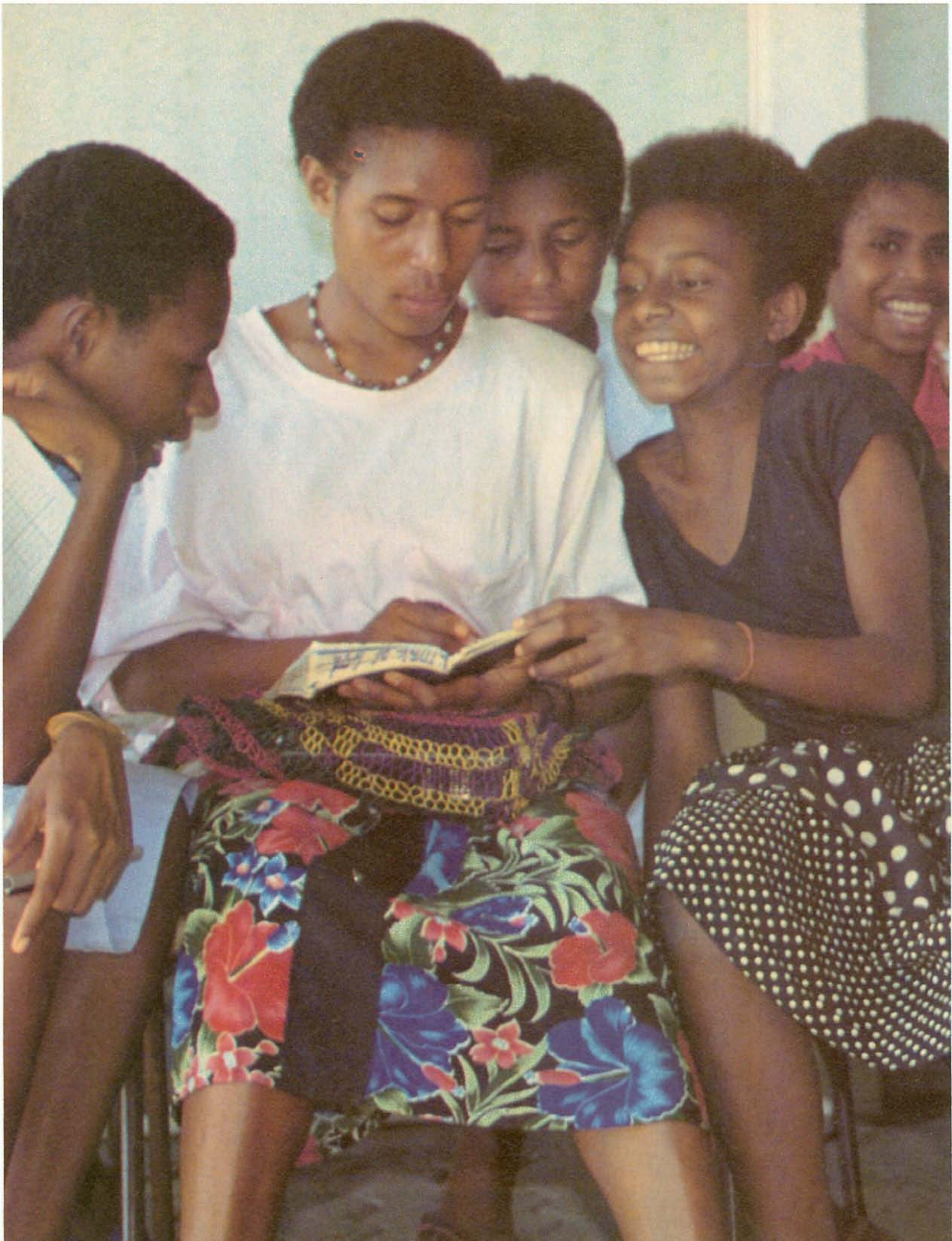
또 다른 방법은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의 육학년짜리 아이는 지진에 관해 들은 후 리히터 지진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다.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찾고 연구함으로써 그 아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가르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한다. 가르칠 기회를 뒤로 미루면 질문은 잊혀지고 인식은 변하며 흥미는 감소되고 연구와 사색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보충할 훌륭한 기회는 매일 오겠지만, 그러한 가르침의 순간들을 움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경전의 이야기들을 상고하고 토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이킹을 멈추고 바위 아래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자녀에게 증조부의 사진을 보여 주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것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영원한 가치가 있다. □







# 파푸아뉴기니의

## ‘한 가지 언어’

마이클 알 모리스

**유** 럽인들이 파푸아뉴기니 탐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19세기의 탐험가들은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세계 모든 언어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850여 개 언어가 이 나라를 구성하는 태평양 위의 섬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부족들은 높은 산들과 험한 지형과 뾰족한 열대 우림 그리고 깊은 계곡과 꾸불꾸불한 강들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살고 있다. 그렇게 격리된 상태로 각각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발전시키며 보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무수한 파푸아뉴기니인들 사이에서 영이 단합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회복된 복음은 이 바다의 섬들 전체에 퍼져 나가고 있으며, 그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함께 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일의 말씀에 따르기 시작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1 참조)

파푸아뉴기니는 뉴기니 제도의 동반부 및 솔로몬 제도와 비스마르크 군도를 포함하여 천 마일에 걸쳐 퍼져 있는 일련의 섬들이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과 적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4백만 명 정도이다.

초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그 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멜라네시아 주민

의 검고 양털 같은 머리를 보고서 “보풀진 머리”라는 뜻을 가진 파푸와라는 말레이어에서 따 그곳을 “파푸아 섬”이라고 이름붙였다. 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섬이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를 닮았다고 해서 그 섬을 뉴기니라고 불렀다. 1975년에 그 나라가 독립되면서 그 두 이름은 합쳐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파푸아뉴기니를 최초로 방문했던 말일성도 선교사들도 초기의 탐험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의심을 받았다. 그 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인들은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로서, 교회에 관한 호기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였다. 교회 회원들은 1987년 이래 두 배로 늘어나서 3,000명 이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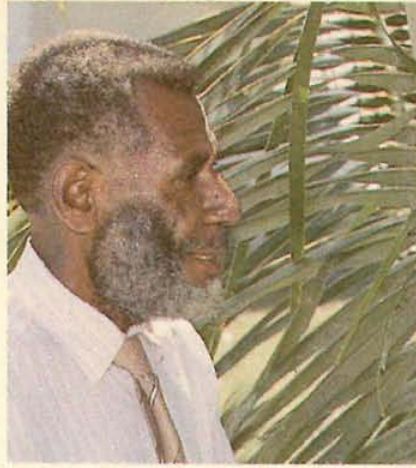
파푸아뉴기니의 말일성도 대부분은 포트모르즈비에 살고 있는데, 불규칙하게 뻗어 있는 그 도시는 그 나라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부족에서 온 170,000여 명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뉴기니 북부 해안에 있는 몇 군데의 더 큰 도시와 다루 섬과 뉴브리튼 섬의 라보울 및 코코넛 조림지에 위치한 쿠리바와 또 인접한 아로아를 포함하여 몇 군데 규모가 다소 큰 지역에 교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장애를 극복하며 봉사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왼쪽),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대부분의 회원들은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 살고 있다. (아래), 십대인 로즈 암부로우의 포풍데타 지부의 섬 맞은편에 산다.





쿠리바 지부 예배당 (맨 오른쪽)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세미나리 교사, 로버트 간디아 (왼쪽)와 그의 아들인 트레보와 조. 그의 학생 중 많은 이들이 조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오른쪽), 포트모르즈비의 아우다 도우리는 1980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최초로 침례받은 성인이다



회 지부가 세워져 있다. 선교사들은 아직도 파푸아뉴기니 인구의 삼분의 일이 사는 비옥하고 불미는 계곡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이전까지는 바깥 세계와 거의 접촉이 없었던 고지 사람들도 이제는 선교사들을 청하기 시작하고 있다.

### “영의 느낌”

1992년에 나단 시리가는 지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정부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북쪽 해안 도시, 포퐁테타에 떠도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 “저는 조사해서 보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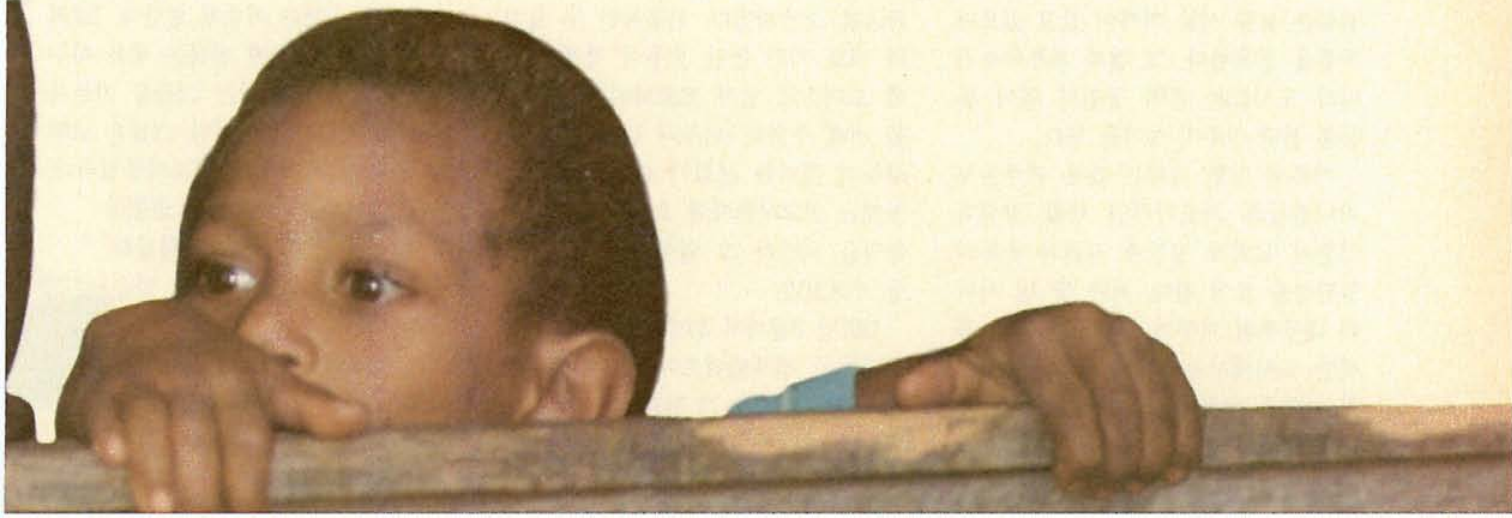
겠다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만일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정부의 관리로서 그 교회를 막으려 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나단 시리가는 파푸아뉴기니 선교부장단의 제2보좌인 동료 공무원, 벤슨 아리엠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시리가 형제는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이 완전히 공무상의 것만은 아니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저는 15년 동안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말일성도들은 내세의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을 몇 달간 공

부한 후, 시리가 형제는 침례받기로 결심했다. 침례받기 전날 저녁에 그는 교리가 참된 지에 관해 기도하였다. 그날 밤, 그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는 “저는 그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가득 차 똑같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늘 무리 가운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현재 포퐁테타 지부의 지부장단 제2보좌인 시리가 형제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교회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는 “저는 교회 회원과 함께 있을 때나 성찬식에서 갖는 그런 영의 느낌을 과거에는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



리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세 돌이 된 파푸아 뉴기니 선교부의 초대 선교부장인 조셉 제이 그리그 형제는 많은 파푸아뉴기니의 말일성도들이 꿈이나 영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주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으로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원들은 간증을 갖고 있으며 또 그들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전합니다.”

### 가족의 유대

친족의 유대 또한 파푸아뉴기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완톡스(“한 가지 말”이라는 영어의 “one talks”와 발음이 같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마을 사람들로서, 주로 가족과 친구들이다. 대가족의 구성원들은 보통 서로 가까이 살고 있으며 자원을 공유한다. 그 결과 파푸아뉴기니의 도시들은 흔히 동질의 언어 및 문화 집단 거주지 성격을 띤다.

가족의 강한 유대는 많은 파푸아뉴기니인들의 과도기적인 생활 양식과 더불어 교회의 성장에 시련과 축복의 양면성을 보여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지부가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도시에서는 회원들이 종종 고향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기 때문에 일요일 참석 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고향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꾸준한 움직임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범국민적인 정서와 오락과 연결되어 아직 교회의 지부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많은 촌락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복음 선교사들은 여태까지 인구가 더욱 조밀한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심지”에 주로 파견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복음 교리를 연구하고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가운데 훈련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촌락에서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 지부가 세워지기도 했다.

1986년 9월에 뱀에게 물려 죽은 아들을 묻기 위해 포트모르즈비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쿠리바 마을로 돌아갔던 존 오우이는 그 작은 마을에 복음을 소개하였다. 전통적인 두 달간의 애도 기간 동안 오우이 형제는 요셉 스미스와 천사 모로나이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너무나 많은 마을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오우이 형제는 선교사들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통역을 하면서 그 열성적인 경청자들을 가르쳤다.

1987년 3월까지 40명의 쿠리바 마을 사람들이 침례받았으며, 작은 지부가 조직되었다. 바로 그 달에 십이사도 위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회

원들이 그 지역의 물자로 지은 이영지봉의 방 한 칸 짜리 예배당을 헌납하였다. 지부의 회원은 1987년 이후 4배로 늘어났다.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통해 15명의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파푸아뉴기니에서 봉사하였다.

### “돌이 쉽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쿠리바의 세미나리 교사인 로버트 간디아 형제는 “돌은 쉽없이 굴러가고 있으며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간디아 형제의 반원인 26명의 학생은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과 함께 자주 모임을 갖는다. 청년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그들의 “나이든 어머니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공과를 통역해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간디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그들을 가르치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은 교회의 중추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충실하고 순종심이 강하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영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약 85퍼센트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간디아 형제도 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원예나

포트모르즈비 지부의 회원인 쿠와 오우마이와 케레아 자네가 자녀인 라이노, 엘리자베스, 산드라, 조우디나와 함께 함. 오우마이 형제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오른쪽) 다루 섬의 자연 항에 작은 통나무 배들이 한가롭게 떠있다



고기잡이나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가족과 세미나리 반원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일과 희생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말한다. 마을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지식과 교회 봉사가 그것에 높은 의미를 채워 준다.

파푸아뉴기니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떤 회원들은 견디고 또 어떤 회원들은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증가하는 회원들과 지도자의 힘 덕분에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찾고 있다.

1990년에 선교사들은 파푸아 만에 있는 포트모르즈비의 서쪽에 위치한 조그만 다루 섬에서 복음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며 전도하기 시작했다. 삼 개월 후 150명 이상의 회원과 함께 지부가 세워졌다. 선교사들이 최초로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부 조직을 정리하면서 일부 회원들은 근처 본토의 마을로 돌아감에 따라 활동이 저조해졌다.

지금은 지부의 지도자들이 부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원 수가 300명이 넘고 활동 촉진의 비율도 높아졌다.

1993년 2월에 예배당을 헌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 지부는 근처 본토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지부장인 찰스 게리는 이렇게 말한다. “다루 섬 맞은편의 본토에서는 벌써 열 군테의 마을에서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교회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곳의 교회로 와서 듣고는 무척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며 그들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을에 교회가 더 빨리 옮겨오기를 바랍니다.”

### “배우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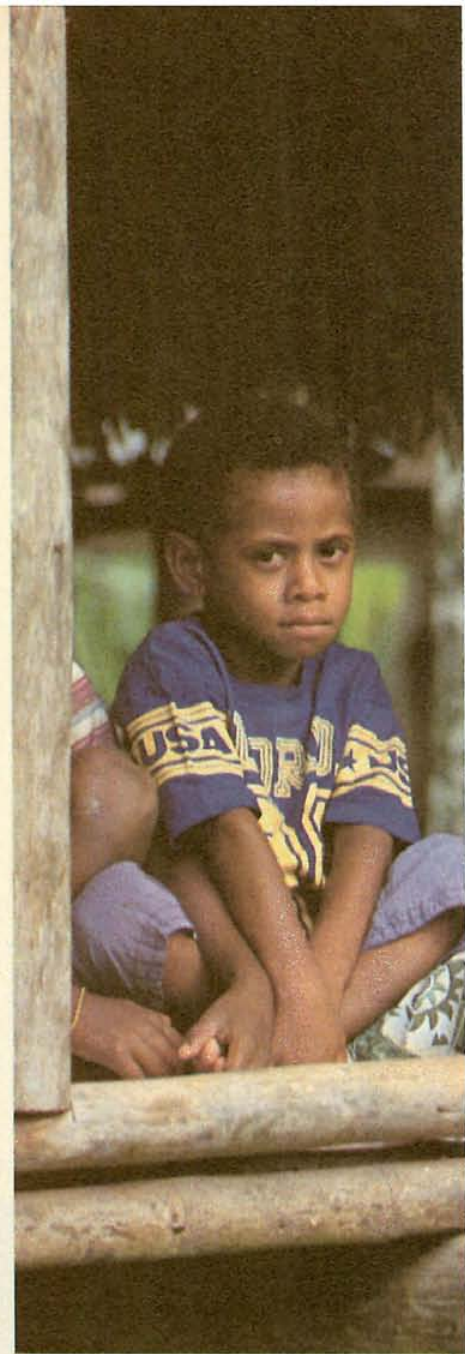
대부분의 파푸아뉴기니인들은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쓰지 못한다. 약 반수의 어린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15퍼센트만이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테의 국립 대학교와 대부분의 지방에 세워진 작은 대학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입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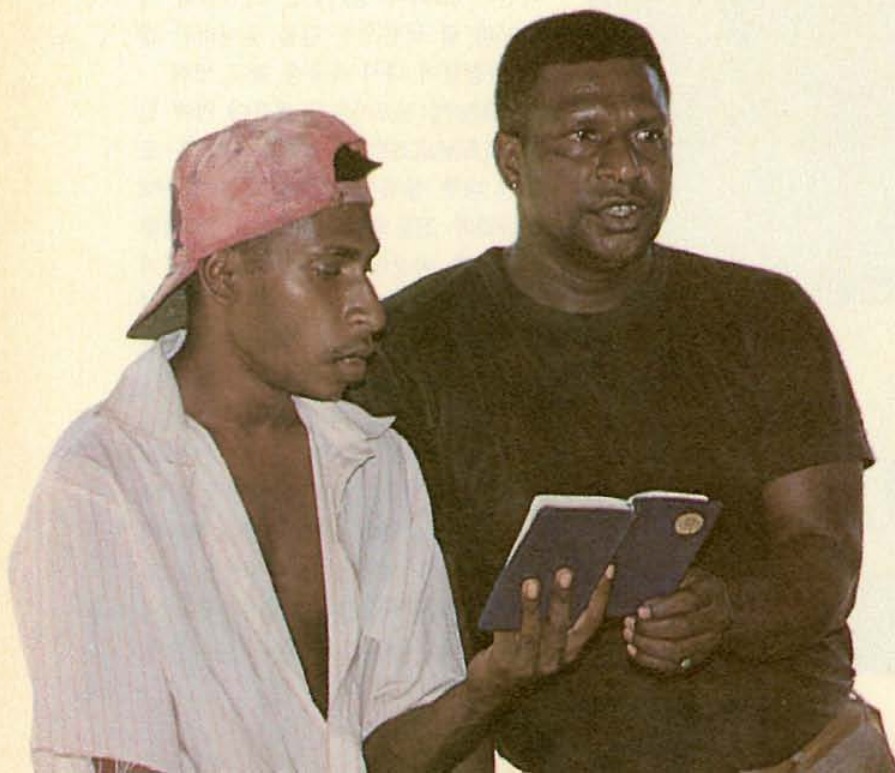
포트모르즈비의 게레호우 지부에서 세미나리와 문맹 퇴치반을 가르치는 에스더 카이리는 “우리는 복음이 주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기뻐합니다.”라고 말한다. 회원들은 특별히 문맹 퇴치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고마워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읽고 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1990년에 도린 후에나와 남편인 윈세스라스 후에나가 교회에 들어온 후 가장 읽고 싶어한 책은 몰몬경과 성경이었다. 그녀는 침례와 더불어 영적인 화평과 직접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포퐁데타 지부의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후에나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몰몬경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한 해밖에 받지 않았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다. 기도와 끈기와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그녀는 곧 경전을 읽고 이해하게 되었다.



(위쪽), 포퐁데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질 하야리 자매가(중앙) 뉴기니 선교부에서 남편인 외렌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유타의 베티 해리스 자매와(오른쪽)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아로아 플랜테이션 지부의 세미나리 교사인 시오니 쿠리와 오우리 소우가 학생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왼쪽)







에드나 암부로우도 처음 몰몬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그 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녀가 그것을 읽으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친구들 모두가 제게 그 책을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라고 말한다.

에드나는 1990년에 침례받았다. 그

후 얼마 안되어 그녀는 세미나리 반원들에게 몰몬경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

“저는 ‘제가 어떻게 가르치죠? 전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영어를 잘 말하거나 쓰지도 못해요. 전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부 회원들과 복음 선교사들이 암부로우 자매에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님께서 그녀가

유능한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두 주 동안 눈물겹게 기도하고 금식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모로나이서 10장 4절과 5절을 보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았으며, 제 마음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리반을 가르치게 되어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몰몬경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암부로우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덕분으로 그녀의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세미나리 외에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며 포퓰테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도 봉사하고 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어요. 교회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것은 배움의 교회예요.”

###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의 말일성도의 생활은 선조들의 재래적인 생활 양식이나, 오늘날 고립된 섬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두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밝은 표정과 일요일 복장 및 복음에 근거를 둔 봉사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복음의 힘을 입증해 준다.

100년 전에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기독교 선교사들 덕분에 그 백성들은 회복된 복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파푸아뉴기니인들은 자신을 기독교도로 여기지만, 복음에 반대되는 믿음과 관습들이 부족 문화와 마을에 존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의심스럽고 적의에 찬 이웃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은 색다른 것이다. 마을에서 서로 경계하는 완독스들

은 적대 부족에게서 흠치는 것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률이 높고 마을 생활의 단합이 깨어진 도시의 낮은 사람에게서 흠치는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은 도시의 교회 회원들 사이에 영적인 연대감을 쌓도록 도와주며 마을 내에 존재하는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포퓰테타 지부의 지부장단 제1보좌인 로카 후이는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뒤에 저는 서로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들로부터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임을 압니다.”라고 말한다.

포트모르즈비 지방부장인 바이바 로우메 형제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여기에 그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백성들이 자신이 방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전통을 뛰어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성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진하는데 필요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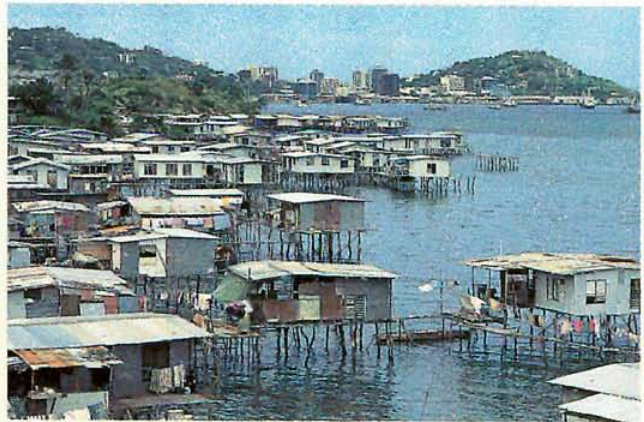
로우메 부장은 아내인 모우베리와 함께 1981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최초의 개종자 무리에 속한 이래 많은 교

회 부름을 받고 봉사해 왔다. 1984년에 그들은 뉴질랜드 성전으로 여행하여 파푸아뉴기니에서 최초로 인봉된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138명의 회원들을 이끌고 호주의 시드니 성전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회원들은 복음이 그들의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책임을 맡고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인정받고 올바르게 대우받으며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파푸아뉴기니의 어떤 다른 조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말일성도들은 문맹과 전통 및 간간이 일어나는 반대 등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많은 언어로 인한 장벽이 극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기까지 한다. 아무튼 영의 음성은 서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 음성을 듣고 주의 기우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언어는 하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부터...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베소서 2:19)다. 심지어 마음도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이며, “언어도 하나”이다. □





전 세계 언어의 거의 삼분의 일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은 이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복음에 귀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한가지 언어’”(40쪽 참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비스마르크

아키텔라고

라보울

다루

포퐁테타

솔로몬 제

포트모르즈비